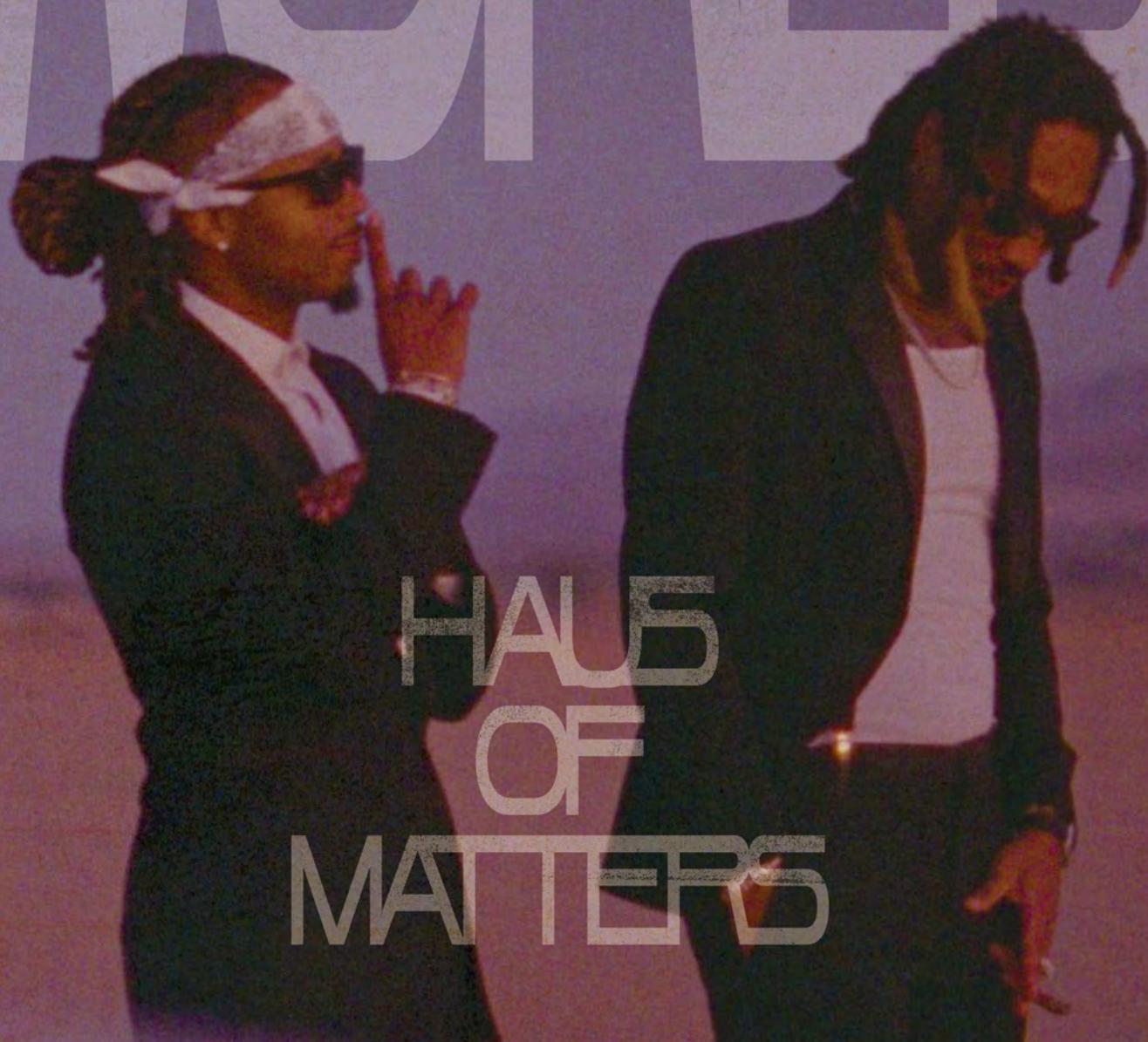


WORLD



HAUS
OF
MATIERS

#10



WORLD HAUS OF MATTERS

#10

ALL IMAGE RIGHTS BELONG TO THEIR RESPECTIVE OWNERS.

매거진에 사용된 모든 이미지는 해당 소유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CONTENTS

INTRODUCING

Fine, Ho Stay / Heavy / Bloody Angel /
Bryson Tiller / It's Us Vol.1 / Might Delete Later /
Heads I Win, Tails You Lose / PARTYNEXTDOOR 4 (P4)

FULL REVIEW

Mika's Laundry / Marciology / Triple Digits [112] /
WE DON'T TRUST YOU / WE STILL DON'T TRUST YOU / Cold Visions

CLASSIC REVIEW

Illmatic / The Big Picture

FEATURED

1994 #3 / snxo의 트랩소울 입문서적 / 케이팝 속 __

EDITOR'S PICK

Bobby Caldwell / Sirens / The Grey Album /
Cold Toronto / Starburster / TL;DR

INTRODUCING

인트로두싱
INTRODUCING

Fine, Ho Stay / Heavy / Bloody Angel /

Bryson Tiller / It's Us Vol.1 / Might Delete Later /

Heads I Win, Tails You Lose / PARTYNEXTDOOR 4 (P4)



Fine Ho, Stay

Flo Milli

TRACK 1. Understand / 2. New Me (Ft. Anycia) / 3. Got The Juice / 4. Neva (Ft. Monaleo) / 5. Never Lose Me (SZA & Cardi B Remix) (Ft. Cardi B & SZA) / 6. Toast / 7. Can't Stay Mad / 8. Edible (Ft. Gunna) / 9. Lay Up / 10. Life Hack / 11. Clap Sum / 12. Tell Me What You Want / 13. Not Sorry / 14. Never Lose Me

DATE 2024.03.15

EDITOR 김상주의

데뷔부터 신세대 Bad Bitch 계보에 명패를 세워 낸 플로 밀리(Flo Milli). "Beef Flomix"를 필두로 일찍이 틱톡에 출지어 바이럴된 곡들이 증명하듯, 그녀는 맵시 있는 랩 디자인과 중독적인 후렴구로 캐주얼한 뱅어에 특화된 테크니션으로도 활약 중이다. 호전적 태도에 양칼진 톤으로 당돌한 심대같은 뻔뻔함과 유쾌함을 살린 브래거도시오는 그녀의 시그니처 'Flo Milli Shit!'을 정의한다. 이는 자신을 기어이 'Ho'로 천명하는 그녀에게 '이곳에 지속돼야 할 내 정체성'에 대한 당위로 작용해왔다. 그녀의 삼부작은 그간 투쟁의 기록이다. 최종장 <Fine Ho, Stay>에서는 비로소 완성된 정체의 결과 속을 완전히 드러낸다. "Understand"와 "New Me"에서는 과시성을 그대로 가져오되, 전례 없이 비장하고 애심찬 모습이다. 또한 그녀는 캐릭터의 면면을 훨씬 더 다각적으로 보여준다. 이를테면 "Never Lose Me"나 "Toast" 등에서의 부드러운 친근감(Intimacy), 후반부 "Not Sorry"에서 보여주는 연약하되 진솔한 감정선(Vulnerability) 등이 그러하다. 이 두 가지 성질로 하여금 작품은 전작들보다 팝적이다. 간혹 기존의 캐릭터와 의도한 입체성이 충돌하며 과하거나 어중간함을 범하긴 해도, 여전한 자신감과 노련함을 통해 앨범 제목 그대로 마땅히 이곳에 있을 당위를 얻어내기에는 충분한 결과다.



Heavy

SiR

TRACK 1. HEAVY (INTRO) / 2. IGNORANT / 3. KARMA / 4. HEAVY / 5. SIX WHOLE DAYS / 6. NO EVIL / 7. POETRY IN MOTION / 8. I'M NOT PERFECT / 9. YOU / 10. ONLY HUMAN / 11. SATISFACTION / 12. LIFE IS GOOD (feat. Scribz Riley) / 13. RICKY'S SONG / 14. NOTHING EVEN MATTERS / 15. TR-YIN' MY HARDEST / 16. BRIGHTER

DATE 2024.03.22

EDITOR denim

TDE 소속 싱어송라이터 SiR의 정규 4집 <HEAVY>는 사운드적으로 그의 전작들과 크게 차별화 되지 않는다. 소울魁리언(Soulquarian) 캔버스에 웨스트코스트 색을 입힌 여유로운 캘리포니안 네오소울은 이제는 그의 정체성에 가깝지만, 한편으론 근 5년의 공백 끝에 발매된 이번 앨범이 진부하단 비평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나, 작품의 서사에 귀 기울인다면 뻔하도록 한가로운 멜로디는 극도의 어두움을 애써 감추려는 억지 미소와 같다는 걸 알 수 있을 터. 그 부드러움의 내막에는 극단적 자기혐오가 감춰져 있다. 2019년 <Chasing Summer> 발표 이후 극심한 우울증에 빠진 SiR는 자가 치유라는 변명 아래 술과 약에 찌든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 시간'을 살아내야만 했다. <HEAVY>는 바로 이 시간의 압축 본이다. 고통에 중독된 자신을 고백하는 "HEAVY," 아내를 아프게 한 죄를 고하는 "ONLY HUMAN," 막대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사회의 위험으로부터 면제시키지 못한다는 자책이 담긴 "RICKY'S SONG" 등이 포함된 16트랙의 밀도는 납덩이와 같다. 개인의 통제를 넘어서 부조리마저 전부 본인의 탓으로 돌린 그는, 5년 동안 세상의 무게에 압사당하고 있던 것이다. 그렇게 일어서기와 주저앉기를 반복한 끝에 도달한 결론은 앨범의 최종 트랙 "BRIGHTER". '밝음'이 아닌, '지금보다는 밝아지기를 희망'하며 마무리되는 <HEAVY>는 SiR의 최고는 아닐지언정 그의 최선을 담아낸 아름다운 절규이다.



Bloody Angel

Sematary

TRACK 1. BLOODY ANGEL / 2. HEADLIGHTS / 3. WENDIGO / 4. SMOKE MACHINE / 5. MORDOR / 6. PARKING LOT SCARECROW / 7. HOCKEY MASK 2 (Ft. Hackle) / 8. SACRIFYCE / 9. BURYD MY HEART (INTERLUDE) / 10. BENADRYL ANGYL / 11. HEARSE TRUCKS / 12. BARROW WIGHTS (Ft. Wicca Phase Springs Eternal) / 13. BLACK WINGS MY TEAM (Ft. Lil Flash) / 14. DEMON IN PAIN / 15. DEAD TREES (Ft. Buckshot (@buckeshot)) / 16. GET MONEY 'N DIE

DATE 2024.03.29

EDITOR SongChico

세미터리(Sematary)는 4년이 조금 넘는 커리어 동안 시카고 드릴, 위치하우스, 호러코어를 한데 섞어내며, 이를 “Butcher House”라는 별칭으로 장르화하는 시도를 가졌다. 그리고 이에 맞춰 자신의 레이블 “Haunted Mound”를 설립하며 실패와는 거리가 먼 아티스트로 성장해나갔다. 하지만 지난해 공개한 EP <King of the Graveyard>에서는 끝내 창의성의 한계를 보이고 말았다. 그의 팬덤은 당혹감을 감추지 않고 ‘첫 번째 실패작’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시기에 공개한 <Bloody Angel>은 새로운 시도보다는 본인의 장점을 발전시키는 전략을 선택했다. 자신의 고향과도 같은 “Butcher House”를 이용해 귀를 채우다 못해 때리는 듯한 타격감을 선사하는 뱅어들로 트랙리스트를 채워냈다. 계속해서 “세미터리식” 뱅어의 나열이 이어지자 인터루드에 해당되는 “Buryd My Heart”를 지나고나면, 시카고 드릴의 비중이 낮아지고 트랩 메탈이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된다. 이 배치는 그간 세미터리가 전혀 보여주지 않았던 방식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름 새로운 시도로 느껴진다. 하지만 초반부의 강력한 임팩트 덕에 오히려 큰 대비를 보여 본작의 유일한 단점으로 남았다.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보편적인 의문에 세미터리는 “그저 잘하던 것을 하자” 정도의 답변을 남겼다. 이 결과물은 혁신을 기대하던 팬들에게는 실망을 남겼지만, 해당 사운드의 선구자다운 모습은 그대로 남아있기에 당장의 위기는 넘겨낸 것으로 보인다.



Bryson Tiller

Bryson Tiller

TRACK 1. http:// / 2. Attention / 3. Stay Gold / 4. Persuasion (Ft. Victoria Monét) / 5. Ciao! / 6. Peace Interlude / 7. Rich Boy / 8. Random Access Memory [RAM] (Ft. Clara La San) / 9. No Thank You / 10. Find My Way / 11. Prize / 12. Waterfalls / 13. ÆON L U S T / 14. CALYPSO / 15. Outside / 16. Undertow / 17. F4U / 18. Assume The Position / 19. Whatever She Wants

DATE 2024.04.05

EDITOR snxo

데뷔 앨범 <T R A P S O U L>을 시작으로 자신만의 장르를 개척한 Bryson Tiller. 드디어 그가 돌아왔다. 세 장의 정규 후 4년 만에 발매하는 셀프 타이틀이니만큼, 그는 본작을 통해 자신의 스펙트럼을 새롭게 정의한다. 이미 Joel Corry, David Guetta와 함께한 “What Would You Do?”를 비롯한 수많은 싱글과 피쳐링으로 UK 댄스 음악과 팝적인 스펙트럼을 보여준 Bryson Tiller는 이번 앨범을 통해 드릴, 댄스홀, 알앤비 등 여러 장르를 자신만의 색으로 차용하여 전작들보다 훨씬 다채로운 사운드를 선보인다. 49분이라는 러닝타임에도 불구하고 19곡이라는 긴 분량을 자랑하는 앨범인 만큼, 개별 곡에 큰 힘을 싣기엔 어려운 구조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Attention”과 “Ciao!” 같은 킬링 트랙은 전작을 통해 증명한 그만의 장점을 재현해내며, 그의 히트 메이킹 감각이 아직 굳건함을 보이고 있다. 앨범이 후반부를 향할수록 힘을 잃는다는 아쉬움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본작의 가장 큰 결점은 아니다. 오히려 <T R A P S O U L>과 <True to Self>, 그리고 <A N N I V E R S A R Y>와 달리 앨범의 방향성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앨범 커버가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 장르를 불문하고 비주얼 이미지가 오늘날 음악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만큼, 본작의 앨범 커버는 앨범 속 음악과 상반된 아쉬움을 남긴다.



It's Us Vol.1

Concrete Boys

TRACK 1. POINT ME TO IT / 2. WHERE YO DADDY? / 3. DIALED IN / 4. PLAYA WALKIN' / 5. LA REID / 6. NOT DA 2 / 7. 2 HANDS 2 EYES 10 WHIPS/RENT DUE / 8. M.O.B. / 9. HIT DIFF / 10. MY LIFE / 11. UP YO STANDARDS / 12. JEFF & LITA / 13. DIE FOR MINE / 14. PIMPIN AINT EASY / 15. ON THE RADAR CONCRETE CYPHER / 16. PINK AND BLUE

DATE 2024.04.05

EDITOR 자카

Lil Yachty는 2023년 굉장히 큰 재평가가 이루어진 아티스트이다. <Let's Start Here.>는 이전까지 힙합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사이 키델릭 락의 요소를 결합하며 당해 가장 충격적인 레코드라는 극찬을 받았으며, 나아가 여러 싱글들을 통해 그는 계속해서 새롭고 신선한 스타일의 음악을 보여주었다. 2023년이 지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고, 2024년 Lil Yachty의 첫 도전은 바로 랩 크루를 결성하는 것이 되었다. 콘크리트 보이즈(Concrete Boys)는 Lil Yachty 본인을 포함해 5명으로 구성된 크루이며, 멤버 모두가 놀라우리만큼 다채로운 스타일을 보여준다. Draft Day의 보컬은 분명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으나, 팀 내에서 가장 인상적이며—Karrah-boooo는 가장 독특하고 빼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동시에 앨범 전체를 이끌어갔다. 그만큼 정말 기억에 남고 흥미로웠던 순간들이 많았지만, 앨범 전체적으로 과하게 힘을 빼 멤버들의 확연한 매력이 잘 드러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거친 비트와 편치라인에 비해 대부분의 벌스가 상당히 공손한 모양새로 짜여 있으며, 과하게 조심스러운 퍼포먼스를 보여주어 이도 저도 아니게 된 트랙들이 즐비하였다. <It's Us Vol. 1>은 갓 태어난 신생 크루의 결과물로써는 어느정도 안정적인 출발처럼 보이지만, Lil Yachty에게 걸린 기대치에 비해서는 아쉬운 결과물이 되었다.



Might Delete La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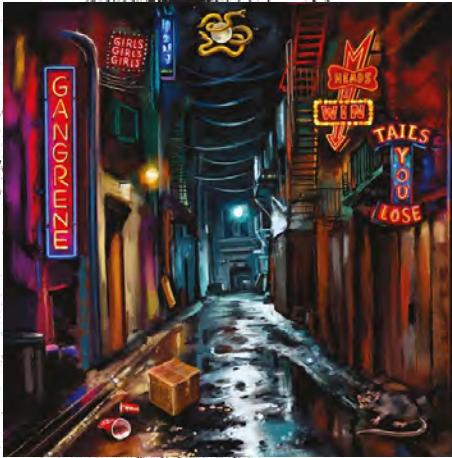
J. Cole

TRACK 1. Pricey (feat. Young Dro, Gucci Mane) / 2. Crocodile Tearz / 3. Ready '24 (feat. Cam'ron) / 4. Huntin' Wabbitz / 5. H.Y.B. / 6. Fever / 7. Stickz N Stonez / 8. Pi (feat. Daylyt, Ab-Soul) / 9. Stealth Mode / 10. 3001 / 11. Trae The Truth in Ibiza / 12. 7 Minute Drill

DATE 2024.04.05

EDITOR 공ZA

다양한 재료로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비빔밥. 별다른 조리기구 없이 쉽게 조리할 수 있고, 신선한 재료의 맛 또한 경험할 수 있기에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이 빛을 발하지 않게 된다면 어떨까? 엉뚱한 재료를 사용한다거나, 만드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말이다. 제이 콜(J. Cole)이 기습 공개한 믹스테잎 <Might Delete Later>에는 책임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은 제목만큼 듣는 이들의 평이 갈릴 만한 요소가 존재한다. 호흡이 잘 맞았던 보컬 Ari Lennox와 기분 좋게 앨범의 포문을 열었던 제이 콜은 "First Person Shooter"에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언급했던 'Big Three'의 타이틀과는 어울리지 않는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변조를 주지 않고 일관된 흐름의 플로우로 벌스를 구성한다거나, 힘 빠진 톤의 보컬로 한 곡을 채우는 것은 제이 콜에게 항상 뒤따랐던 '수면제'라는 수식어를 떠오르게 한다. 또한 샘플 드릴을 활용한 "H.Y.B"와 뒤이어 나오는 댄스홀 넘버 "Fever"는 그가 다양한 장르를 소화해내기에는 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다. 하지만 사이사이 보법이 다른 트랙들도 눈에 띈다. "Stickz N Stonez", "Stealth Mode", "Trae The Truth In Ibiza"에서는 제이 콜 특유의 탄탄한 발성과 더불어 더욱 신경 쓴 태가 나는 리듬감이 돋보인다. 이처럼 애매한 비빔밥의 마지막 한 술은 'One & Only'로 자신을 지칭한 Kendrick Lamar를 향한 디스로 마무리 되나 싶었지만… 제이 콜이 스스로 밟아내며 이도 저도 아닌 꽃이 되었다. 과연 그가 목놓아 외친 <The Fall Off>는 멋들어진 차림새의 한정식이 될 수 있을까?



Heads I Win, Tails You Lose

Gangrene (The Alchemist, Oh No)

TRACK 1. Congratulations, You Lose / 2. Dinosaur Jr. / 3. Oxnard Water Torture / 4. The Gates of Hell (Ft. ANKHLEJOHN) / 5. Cloud Surfing / 6. Free Money Interlude / 7. Espionage / 8. Magic Dust (Ft. Evidence) / 9. Watch Out / 10. Just Doing Art (Ft. Boldy James) / 11. You Should Join the Army / 12. Royal Hand by The Alchemist (Ft. Gangrene) / 13. Muffler Lung

DATE 2024.04.19

EDITOR ryuzimoto

수많은 마천루의 불빛으로 완성되는 도심 이면엔 이질적인 흥등으로 빛나는 늑눅하고 지저분한 길거리가 있기 마련이다. 이같은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배척받는다.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공간을 선호하는 부류들이 있다. 이들은 자본주의 및 인간관계에서 버림받은 자들이 대부분이지만, 시대의 주류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이 공간에 속하기 원하는 사람들 또한 분명히 있다. 알케미스트 (The Alchemist)와 오 노(Oh No)로 구성된 Gangrene처럼 말이다. 이들은 최근 정규 4집 <Heads I Win, Tails You Lose>를 발매하며 다시 한번 메인스트림을 벗어나길 갈구했다. 음산한 신스, 기괴한 샘플 루프와 더불어 마치 드럼리스가 아른거리는 힘 빠진 드럼까지. 다양한 요소를 배합하여 이지리스닝과는 거리가 먼, 앱스트랙하고 사이키델릭한 사운드스케이프를 담아냈다. 모든 트랙을 알케미스트와 오 노, 단 둘이 번갈아가며 프로듀싱하였기에 가능한 모양새다. 여기에 냉소적인 둘의 랩핑이 적절하게 맞물려 들어가면서 앨범의 테마를 확실히 구체화한다. 마치 과거 Company Flow나 현재의 Danny Brown처럼 말이다. 차트인을 노리고 만들어진 음악, 트렌드에서 동떨어진 음악,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에서 어떤 것이 동전의 앞면이자 승리자인지, 뒷면의 패배자인지 쉽사리 판단 할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Gangrene은 스스로를 앞면이라 생각하며 약 15년 동안 이어온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PARTYNEXTDOOR 4 (P4)

PARTYNEXTDOOR

TRACK 1. Control / 2. Lose My Mind / 3. Stuck In My Ways / 4. Chers / 5. Makelt To The Morning / 6. No Chill / 7. Her Old Friends / 8. The Retreat / 9. For Certain / 10. Sorry, But I'm Outside / 11. Real Woman / 12. A Mother's Prayer / Family / 14. Resentment

DATE 2024.04.26

EDITOR snxo

2020년 발매 된 정규 3집 <PARTYMOBILE>을 통해 가벼운 분위기의 팝적인 트랩소울을 선보인 PARTYNEXTDOOR. 그가 4년 만에 새로운 정규 앨범을 발매하며 스스로 정립시킨 장르의 근본을 되찾아왔다. 트랩소울의 시작을 알린 앨범이자 그의 데뷔 EP인 <PARTYNEXTDOOR>에서 이어지는 네 번째 셀프 타이틀 작품이니 만큼, <PARTYNEXTDOOR 4>는 자신이 만들어낸 문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완벽하게 소화해낸다. 하지만 이를 다르게 말하면 기존의 문법을 너무 따른 나머지 음악적 발전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기도 하다. 비슷한 분위기와 멜로디가 이어지는 55분이라는 긴 여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각적 지루함을 나레이션과 선공개 트랙을 앨범 곳곳에 배치하며 최소화시켰다는 점은 높게 살 만 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그의 작품과 비교했을 때, 본작이 가장 단조로운 구성을 띠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트랩소울의 또 다른 대부인 Bryson Tiller가 요즘 쓴의 트렌드에 맞추어 타 장르와 트랩소울을 결합시키는 시도를 그의 새 앨범 <Partynextdoor>에서 선보였다면, PARTYNEXTDOOR은 이에 맞서기라도 하듯 트랩소울의 색과 감성을 최대치로 증폭시켰다. 이는 <PARTYNEXTDOOR 4>를 청취하며 곱씹어 볼 만한 포인트 중 하나이다.

FULL REVIEW

THE 200

Mika's
Laundry

MARCIOLGY

TRIPLE DIGITS


WE DON'T
TRUST YOU
WE STILL DON'T
TRUST YOU

COLD
VISIONS

Mika's Laundry

by 자카



비록 현재는 해체되었으나, 힙합-보이밴드 BROCKHAMPTON은 씬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음악을 해온 그룹으로 평가받았다. <SATURATION> 트릴로지의 실험적이고 익살스러운 음악, <iridescence>와 <ROADRUNNER: NEW LIGHT>에서의 아트적인 면모, <GINGER>와 <TM>의 따뜻함 등, 이들이 수용한 음악의 폭은 상당히 다양하고 그 퀄리티 또한 매우 높아졌다. 그룹이 그랬듯 멤버들 개개인 또한 하나하나 본인들만의 개성 있는 음악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다. Merlyn Wood와 Joba는 실험적인 음악을 선보였고, Kevin Abstract와 Bearface는 따뜻한 스타일의 음악을 자랑했다. 그리고 맷 챔피언(Matt Champion)의 음악은 실험성과 따뜻함, 두 마리 토끼가 한데 어우러진 독특한 스타일로 묘사된다. R&B, 힙합, 팝과 디스코 장르까지, 다양한 장르를 한데 둥쳐 자신감과 성찰을 동시에 표현해 내는 그의 음악을 그룹 내에서 독보적이라고 칭하기 어렵지만, 그 색채는 진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BROCKHAMPTON의 해체 이후 리더 Kevin Abstract는 3 번째 솔로 앨범 <Blanket>을, Merlyn Wood는 그룹의 이전 멤버였던 Ameer Vann 과의 합작 앨범 <Slime In the Ice Machine>을 발매하였다. 다소 편협한 시각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유감스럽게도 두 작품에는 그다지 좋은 평을 내리기는 어려웠다. <Blanket>은 너무 과도하게 힘을 빼버린 나머지 이도 저도 아닌 모양새의 작품으로 남았고, <Slime In the Ice Machine>은 막상, 곡의 구성, 퍼포먼스 등 다양한 부분에서 오직 단점만이 두드러지는 앨범이었다. 해체 이후 발매된 멤버들의 솔로작들에는 아쉬움만이 크게 남았으니, 이어 맷 챔피언의 첫 솔로 정규 음반은 기대감 반, 불안감 반이었다. 그러한 걱정과 우려 속에서 <Mika's Laundry>가 발매되었다.





앨범을 처음 듣고 느꼈던 개인적인 감상은 맷 챔피언 본인이 자신의 음악으로 어떠한 발자취를 남기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의 예술적 비전은 어떤 것인지 깊게 고심하여 내놓은 결과물이란 사실이다. <Mike's Laundry>는 맷 챔피언이라는 한 사람의 삶과 감정, 그리고 그의 철학을 모두 담은 앨범이다. 'Laundry'라는 단어가 이를 암시하기라도 하듯, 그의 내면세계를 비워내는 것에서 시작된 본작은 리스너들에게 그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창을 제공하였다.



앨범 속의 각 트랙은 마치 삶의 다양한 순간들을 음악으로 스케치한 선율처럼 느껴진다. 정화와 자기 성찰, 자유에 대한 갈망, 위기 속에서의 깨달음, 기대감과 불안감 사이의 노스탤지어, 예술가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미묘한 사랑의 관계 등. 맷 챔피언은 자신의 경험을 점층적이고 아름다운 사운드로 표현해낸다. Djjon을 비롯한 다양한 백그라운드 보컬의 활용, 독특하고 흥미로운 앨범의 프로덕션을 비롯한 수많은 장치를 통해 맷 챔피언은 그의 내면세계를 음악으로 훌륭하게 옮겨놓았다.

오프너 트랙 "Green"은 탄탄한 구조로 짜인, 앞서 언급한 사례에 완벽히 부합하는 예시이다. 녹진하고 동환적인 뭉게구름 같은 프로덕션과 맷 챔피언의 빼걱대는 보컬이 탄탄한 조화를 이루어내었다. 성장과 사랑을 하면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통증을 그의 방식으로 아름답게 풀어낸 트랙이다. 그 뒤에 이어지는 "Aphid" 또한 주목할 만하다. 보컬을 몇 겹씩 쌓아 올리는 방식을 통해 정성스레 빚어낸 베드룸 팝 트랙이며, Djjon의 보컬 퍼포먼스 또한 더욱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데에 크게 공헌하였다. Dora Jar가 힘을 보탠 "Steel"은 그 Lo-Fi하고 그루비한 분위기나, 맷 챔피언과 Dora Jar의 보컬, 노스탈지어적인 비트까지, 그 어느 하나 흠이 보이지 않는 훌륭한 뱅어 트랙이다.



앨범의 중반부를 이끌어가는 트랙들 또한 눈에 띈다. 우선 "Purify"는 훌륭한 베이스 라인과 멜로디, 아름다운 하모니로 이루어져 BROCKHAMPTON의 커리어 내에서 가장 따뜻한 레코드라는 평을 받는 <GINGER>, 그리고 아마추어스러운 음악을 사랑하는 Quadeca의 <SCARPYARD>와 같은 앨범을 연상케 한다. 1980년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Slug"는 경쾌한 프로듀싱과 더불어 달콤한 가사와 터져 나오는 보컬이 상당히 인상적이다. 앨범의 분위기를 환기시켜주는 아주 훌륭한 댄스 팝 트랙이다. 블랙핑크의 제니가 보컬로 힘을 보탠 "Slow Motion"은 더듬거리고 공허한 분위기를 자랑한다. 사랑의 미묘한 감정을 아름다운 선율로 표현한 "Slow Motion"은 굉장히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 일관된 분위기를 3분에 걸쳐 지루하지 않게 끌고 나간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평가할만하다. 특히 제니의 보컬 퍼포먼스는 그녀가 지금껏 보여준 모습들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축에 속한다.

물론 아쉽게도 부족한 부분 또한 존재한다. "Gbiv"은 앨범 내에서 힙합의 요소를 가장 크게 포함하고 있는 트랙이지만, 곡은 상당히 매끄럽지 못하고 부자연스럽다. 응얼거리는 래핑 또한 그 매력보다는 단점이 더욱 크게 다가왔다. 가사나 프로듀싱은 상당히 훌륭했던 트랩 넘버였으나, 맷 챔피언의 퍼포먼스가 곡을 망쳐놓은 안타까운 사례이다. "Dogfish"와 "Project"를 비롯한, 상당히 지루한 트랙들의 존재 또한 앨범의 감점 요소이다. 두 트랙 모두 감정을 꾹꾹 눌러 담은 보컬은 인상적이었으나, 가사가 너무나도 진부하고 곡의 전개 또한 피곤하고 지루하다. 곡을 조금 더 길게 만들고 후반부에 모든 감정을 내뿜어내는 연출을 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맷 챔피언의 첫 솔로 앨범 <MiKa's Laundry>는 다행히도 그의 솔로 커리어의 성공적인 출발로 남았다. 독특하고 빼어난 프로덕션, 훌륭한 보컬 하모니와 래핑, 그리고 R&B와 힙합을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섞어낸 본작에서 우리는 맷 챔피언이라는 아티스트로의 재능을 잘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앨범의 구성과 너무도 짧고 부족한 트랙들이 존재한다는 점은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MiKa's Laundry>는 그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충분히 잘 드러낸 작품이며, 앞으로 더욱 발전 할 맷 챔피언의 모습을 기대하게 만든 작품이었다.



2024.03.22

- | | |
|--------------------------|------------------------|
| 1 Green | 8 Aren't You Excited |
| 2 Aphid (feat. Dijon) | 9 Slug |
| 3 Steel (feat. Dora Jar) | 10 Everybody Likes You |
| 4 Gbiv | 11 Project |
| 5 Purify | 12 Slow Motion |
| 6 Dogfish | 13 Meetin' You |
| 7 Code Red | |

MARCIOLY

MARCIOLY

ROC
MARCIA

2024.03.29
by 韩国



MARCIOLY

- 1 Marciology
- 2 Goyard God
- 3 Gold Crossbow
- 4 True Love
- 5 BeBe's Kids
- 6 Bad JuJu (Ft. Larry June)
- 7 Tapeworm
- 8 Killin' Spree (Ft. CRIMEAPPLE)
- 9 Went Diamond
- 10 Higher Self (Ft. Flee Lord & T.F.)
- 11 LeFlair
- 12 On the Run (Ft. Jay Worthy)
- 13 Larry Bird
(Ft. GREA8GAWD & Knowledge The Pirate)
- 14 Floxxx

90년대의 끝물에 다다른 뉴욕은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단어로 치환된다. 자본주의는 아주 친절하고도 신사적으로 지저분한 갭의 패거리들을 내쫓았고, 시대정신에 따라 뉴욕의 센트럴 파크와 타임스퀘어는 곧 넥타이를 둘러맨 샌님들의 차지가 되었다. 이전까지 브롱스, 퀸스, 브루클린은 거리를 대표하는 기라성 같은 MC들을 키워냈다. 하지만 그 무지막지한 덩치에 걸맞은 후사를 빚어내기란 다른 국면의 문제점이었다. 당시 뉴욕의 피를 물려받은 DMX, 50 Cent, Ja Rule, Cam'ron의 The Diplomats 등이 세상에 널리 이름을 알렸으나, 이들은 분명하게 거리감이 느껴지는 서쪽 혹은 남쪽의 아우라를 풍겼다. 때문에 그들이 뉴욕의 자손일지언정 ‘뉴욕 힙합’의 직계 자손으로서는 틀림없이 결격이었다.

대신 뉴욕 힙합의 자손들은 본토를 뒤로한 채 뉴욕을 에워싼 잔당들에게서 스멀스멀 자라나는 낌새를 보였다. 뉴욕의 경계선을 바라본 햄프스테드 역시 뉴욕 힙합이 낳은 성지 중 하나였고, 그 도시가 낳은 Roc Marciano는 뉴욕 힙합의 유전자를 물려받을 양자로 그 누구보다도 적격이었다. 그의 아이덴티티는 <Only Built 4 Cuban Linx...>, <Do Or Die>, <Reasonable Doubt>를 잇는 마피오소 랩의 후계자로서 Neoclassicism(신고전주의)의 형태로 정립되었다. 그 결실은 2010년 <Marcberg>으로 언더그라운드의 초신성이 되어 전무후무하고도 견고한 뉴욕 혈통의 새로운 뿌리가 되었고, 그 후의 전설은 아는 이들이 알고 모르는 이들이 모르는 이야기가 되었다. 퀘퀘한 새벽의 먼지 투성이 골목을 지배하던 그와는 달리, 틀림 없는 슈퍼스타로서 20년대 초를 상징하는 위치까지 올라선 집단 Griselda가 등장하기 전까지.

오늘날 시대의 흐름이 뒤바뀌었다. 세간이 Nirvana의 수영장 속 얼터너티브를 들여다본 뒤로 Sonic Youth의 음악이 스멀스멀 물으로 건져 올려졌듯, Griselda의 폭풍 같은 번성이 흘러온 물살은 Roc Marciano에게 이르러 일광욕을 즐기는 그의 신발을 적셨다. 아이러니하다. 파도가 훤헸 어도, 비 폭풍이 몰아쳐도, Marciano는 언제나 멀찌감치 떨어진 파라솔 아래 썬뱅드에 걸터앉아 차분하게 시가 연기를 피워댔으니까. 무자비하게 몰아치는 추임새와 탄력 넘치는 랩 스킬로 중무장한 Griselda에 매료되었다면 Marciano의 앞까지 도달한 청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기 어려우리라 예상된다. 차분하고 안정적인 발성과 랩 디자인, 여유 넘치고도 기품 있는 톤, 질감과 공간감에 몰두한 공허한 텍스처라이징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프로덕션. 이들은 Griselda에게 기대하는 카타르시스와 다른 종류의 자극이기 때문이다.

<Marciology>에 휘갈긴 글씨체 역시 그를 묘사한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리오 아르젠토의 지알로 필름 중 찰나의 자태를 연상케하는 앨범 커버. 그 위 몸소 ‘Marcianotic’의 교본을 정립하는 제목을 명명한 <Marciology>. 어느덧 15년에 이르는 세월의 관록으로 겹겹이 쌓인 Marciano의 규조토와도 같은 작법은 더 이상 범접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저 익을대로 익어 성숙한 열매의 빛깔을 뽐낼 뿐이다.

이전부터 몸소 무대의 너비 규격과 스포트라이트의 광각마저 조율한 그의 프로덕션 실력은 가히 의심할 바가 없었고, Marciano의 주특기로 여겨지는 독창적인 루프의 활용으로 간결하고도 밀도 높게 앨범 전체를 견인하는 능력은 구체적인 기법의 경탄스러움을 활자로 담아내기 어려울 지경이다. 거대한 물뱀이 들짐승의 목을 천천히 휘감아 질식을 유도하듯, 서서히 숨통을 조이는 루프들이 풍긴 스산한 아우라는 피부를 훠뚫어 신경을 곤두서게 만든다. 그 위에 Marciano는 구렁이가 담을 넘어가는 듯 한 유려한 플로우로 느와르틱 가사들을 산개시키며, 유희 섞인 말장난을 대부분의 지령에 이르기까지 극대화시킨다. 극도의 미니멀리즘을 능히 다루며 청자들을 무아지경으로 휘감는 방법을 터득한지 오래다. 짧은 보이스 샘플 구절로 엮어낸 “True Love”, 몇 종류의 음계들을 중추로 빛어낸 “Gold Crossbow”와 “LeFlair”, 나른한 스트링사운드를 뻔뻔히 배치하는 “Went Diamond” 등 그 방식 또한 다양하다.



셜록 홈즈를 맞이한 거대 마피아 카르텔 배후의 등장 음악 “Marciology”, 질주하는 증기기관차 위의 스릴러를 연상케 하는 “Floxxx”, 악행과 선행을 일삼으며 혼란을 끼친 자경단원의 처형식에 울려퍼지는 “Higher Self”. 자체적인 해석의 비공식성을 차치하더라도 몇 구절의 가사들을 끼얹으면 모두 Marciano의 마피오소 감각으로 탈바꿈한다. 그가 단순히 문장의 마디를 염은 래퍼가 아닌 프로듀서의 역할 역시 겸임하기 때문이다. 기술적인 면모에서 Marciano의 비법서를 그저 훔쳐보기란 개인 저서에 집필한 방대한 쪽수를 따라가기엔 터무니 없이 약소한 노력이다. 때문에 간간히 웹 서핑에서 그가 자취를 남긴 흔적의 해답을 얻는 순간들도 전 만큼 그리 폭발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꾸준히 표준화된 예술적 참신함의 연속이다.

2024년에 이른 현재 Marciano의 행보를 살피면 도통 흡잡을 구석이 없다. 본작에서 그랬듯 자신의 작품에 많은 후배 아티스트들을 기용하거나 혹은 그들의 앨범에 피처링으로 참여하고, 프로듀싱 능력으로는 Stove God Cooks, Flee Lord와 Jay Worthy 등에게 양질의 비트를 제공하는 등 후배들의 양성과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그런 Marciano에게 <Marciology>는 굴곡 없는 커리어의 연속이다. 본작으로 그는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언더그라운드 대부의 품격을 드높인다. 혹자는 전작들과 비교할 때 앨범의 특수성이 부족함을 지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몇 아티스트가 자가복제 혹은 과거작의 무성의한 답습으로 비판받을 때 Marciano는 다수의 웹진과 유저 커뮤니티의 호평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그의 답습과 신고전주의는 필요한 변화점과 견고한 내실이 더해진, 그저 긴 세월 동안 자신의 보석을 갈고 닦으며 조각을 깎아내듯 꿋꿋하게 다져온 결실이다. 그간 밟아온 디스코그래피의 파편들은 Marciano의 명성을 이루는 살점이 되고, <Marciology> 역시 그가 남긴 목걸이의 수많은 보석들 중 하나가 되어 오랜 시간 반짝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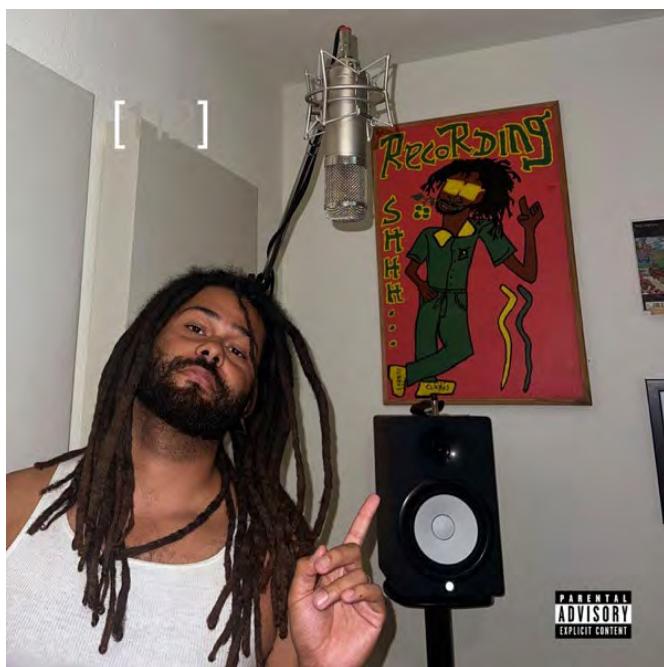


TRIPLE DIGITS



RITCHIE

by 예리



2 0 2 4 0 4 0 5

- 1 Wings [Intro]
- 2 WYTD?!?!
- 3 RiTchie Valens
- 4 The Keepers
- 5 Only You
- 6 Triple Digits [112]
- 7 Dizzy [Ft. Aminé]
- 8 Looping
- 9 Your Worst Nightmare
- 10 How?! (Ft. Niontay)
- 11 Get a Fade
- 12 The Thing (Ft. Quelle Chris)
- 13 Sonthe.
- 14 [Credits]



성장하는 아티스트의 변천사를 지켜보는 것만큼 흥미로운 고찰은 없다. Chur Bum이란 과도기 전후로 Wolf Haley에서 Tyler Baudelaire로 변신한 Tyler, The Creator. <K.I.D.S.>에서 <Swimming>과 <Circles>에 이르기까지 섬세한 감정선의 변화를 보인 Mac Miller. K-dot – good kid – King Kunta – Duckworth – Mr. Morale에 이르며, 일약 스타덤에 오른 루키가 거장의 위치까지 발돋움하고 다시 자신의 내면으로 돌아가 넓은 시야로 세상의 갈래들을 관망하는 Kendrick Lamar의 지난 10년. 아티스트들의 자취를 죽을 때 청자는 저의에 대한 설득력을 얻고 인물의 가치관에 몰입하게 된다. 서사는 캐릭터다. 서사는 정체성이다. 서사는 곧 예술가를 설명하는 인체해부학도가 된다.

WHERE DO I GO? WHAT DO I DO?

애리조나의 힙합 트리오 Injury Reserve의 등장은 어땠는가. 익스페리멘탈 힙합의 선도 주자 중 하나인 아방가르드 실험자들이라는 이명을 달기 전, 그들의 초기 믹스테잎 <Depth Chart>과 <Cooler Colors>는 명백히 재즈 랩의 형식을 갖춘 엄연한 힙합 앨범이었다. Death Grips의 <Death Grips>와 clipping.의 <Midcity> 등 등장시기부터 갈피를 잡고 조타한 그룹이 있는가하면, Injury Reserve는 그렇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들에겐 분명한 서사가 있었다. <Live from the Dentist Office>, <Floss>, <Drive It Like It's Stolen>, <Injury Reserve>까지 점점 휘도 높은 빛깔로 칠해지는 Injury Reserve의 색깔. 커리어를 진전할수록 그들의 아이덴티티는 뚜렷해져만 갔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Stepah J. Groggs를 떠나보내기까지.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트리오가 아니게 되었다. 새로운 앨범은 한층 어두워진 아우라로 짙어진 색채를 내보였고, 이 변화는 한계에 다다른 예술성을 만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Outside”와 “Knees”의 뮤직비디오에서 Stepah를 기리는 흔적들이 여실히 드러나듯, 애도의 마음으로 현정한 <By the Time I Get to Phoenix>를 통해 Injury Reserve는 그들의 마지막 홍염을 불사르며 정점에 이르게 되었다. 이 역작을 끝으로 Injury Reserve의 서사는 막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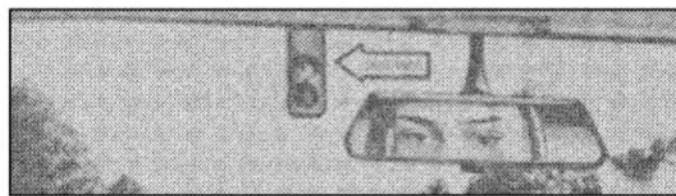


그 후 익히 알려진 대로 RiTchie와 Parker Corey는 더블 싱글 <Double Trio>를 공개하며 By Storm으로의 탈바꿈을 선언했다. 팀을 재결성한 그들의 다음 행선지는 어디인가. 약 1년 간의 기다림 끝에 By Storm의 활동에 앞서 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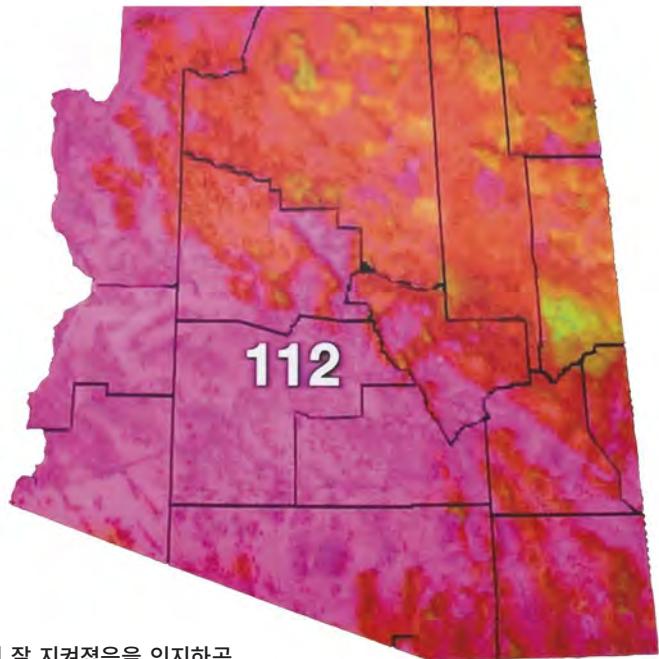
음으로 선보이는 앨범 단위 작업물인 RiTchie의 솔로 프로젝트 <Triple Digits [112]>가 발매되었다.

RiTchie가 내세우는 골자는 비정형화에 기초한다. 흔히 적극적인 인더스트리얼 일렉트로·노이즈 사운드의 도입으로 정형화된 익스페리멘탈 힙합처럼 고착화된 실험성의 표방과 달리, 활자 그대로 앨범의 전개를 도무지 종잡을 수 없다. 하나 <Triple Digits [112]>가 단순한 싱글 모음집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게 듣는 이들의 신경기관들을 휘어잡는 중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틀쑥날쑥한 분위기의 트랙들 속 몇 킬링 트랙을 배열하며 나름의 선형적 구조가 앨범을 관통하는 방식이다. 싱글컷된 트랙 “RiTchie Valens”, “Dizzy”, “Looping”은 물론 “WYTD?!?!”와 “The Thing”까지. 비록 14곡이 수록된 32분 가량의 앨범임에도 찾게 등장하는 특징적 순간들은 등뼈에 접합된 스파크처럼 산재된 자극을 발산한다.



이전까지 Injury Reserve의 커리어가 실험적인 프로덕션의 도입으로 힙합을 덜어내는 과정의 연속이었다면, RiTchie는 랩 파트의 왜곡과 변칙성을 통해 랩을 프로덕션에 힘을 싣는 도구로 활용한다. 견고하고 단단한 랩을 선보인 과거와는 달리 글리치와 디스토션이 가득 한 장치들 위에서 치즈처럼 주욱 늘어나는 끈적하고 녹진한 목소리들이 점철된다. 그간 뼈대 역할을 해준 랩의 모호한 불명확화는 앨범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명백한 단점을 내포하지만, 오히려 이 혼란은 <Triple Digits [112]>에 녹여낸 RiTchie의 앱스트랙트 미학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 <By the Time I Get to Phoenix>와는 다른 방식의 추상성이 들통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앨범을 정독한 청자라면 느낄 수 있듯, <Triple Digits [112]>를 양껏 즐기기엔 꽤 난이도가 높고 접근성이 낮은 구성을 보인다. 비유하자면 각양각색의 지점토를 물에 한가득 적셔 의류 건조기에 넣고 뒤섞어 말린 듯하다. 타이다이나 레지스트 염색을 연상시키는, 그러나 예술보다는 찰흙놀이에 한참 가까워보이는 구조화다. 이를테면 인터넷 밴드 쓰이는 중장년 층의 등산복 차림 혹은 유치원생들의 자유롭고 무자비한 색칠놀이를 연상케 하는 부조화 색 배합과도 같다. 간혹 <The Life Of Pablo>나 <The Black Album>의 비유기성을 고려할 때에도 필요 수준의 감정 등락 양식의 규



율이 잘 지켜졌음을 인지하곤

했다면, RiTchie는 불문율과 다소 거리를 두 무작위적 널뛰기를 선보인다. 분명 클리셰 이탈은 늘 작은 차이의 관점에서 언제나 기회를 준다. 때문에 누구라도 마르셀 뒤샹 혹은 앤디 워홀을 꿈꿀 수 있겠지만, RiTchie가 제시한 청사진을 이에 견주기엔 아쉬움이 많다.

“Get A Fade”에서 보인 오토클 위 2분 간의 반복적 피치 시프트는 확실히 지루할 수 있고, “Wings [Intro]”와 “[Credits]”를 포함한 인터루드 형식 트랙들의 존재 의의에 가지는 의문 역시 당연하다. 과거 “Top Picks for You”, “Knees”에서 이룬 단순함과 단순함의 성공적 감합에 비하면 아쉬운 결과다. Aminé와 Quelle Chris의 피처링에서 느낀 쾌감 역시 흥미를 둘구는 최소한의 단조로움이 필수불가결이었음을 표하는 방증이 되겠다.



<Triple Digits [112]>은 군데군데 아쉬움을 남겼지만, 이 아쉬움은 결코 본작의 무용론으로 귀결되진 않는다. <Triple Digits [112]>는 분명히 그간 Injury Reserve에서 볼 수 없던 또 하나의 비전을 제시했다. 경쾌하면서도 스산한 아우라를 뒤섞은 아방가르드 에스테틱은 부정할 수 없는 매력적 감상 포인트로, 청자들의 귀를 사로잡고 By Storm의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데까지 확장한다. 다만 더 확실한 방법론의 확립이 필요해보인다. Stepia의 부재가 결코 By Storm의 쇠퇴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한다. 그들은 분명 번뜩이는 상상력으로 불꽃을 튀겨댄 성공적 기록물을 남겼으니까. 그들에겐 아직 기대할 불씨가 남았다.

METRO BOOMIN & FUTURE WE DON'T TRUST YOU

BY 지카

현재 가장 큰 화제성을 갖는 힙합 아티스트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 누구도 부정 못할 상업적 성공을 이룬 Drake, 피처링 1순위로 불리는 Travis Scott과 Playboi Carti 등 수많은 이름이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주인공인 퓨처(Future)와 메트로 부민(Metro Boomin) 만큼이나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아티스트는 없을 것이다. 10년이라는 시간동안 히트 싱글과 특색 있는 앨범들을 꾸준히 발매해온 둘은 힙합씬의 바운더리를 넘어 음악 업계 전체를 통틀어도 상당히 큰 입지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퓨처와 메트로 부민의 조합이 유명하지 않을 리 없다. 명백히 힙합 씬에서 최고의 듀오 중 하나라는 평을 받아 마땅하다. 둘의 대표곡 크레딧을 확인해 보면 항상 서로의 이름이 함께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 말이다. "Mask Off", "Honest", "Superhero (Heroes & Villains)" 등 퓨처와 메트로 부민이 함께 빛어낸 수많은 곡들은 현재 새로이 등장하는 트래퍼들에게 귀감이 되고는 한다. 이들의 합작 앨범은 그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순간부터 계속 리스너들의 뜨거운 관심을 온몸으로 받아왔다. 앨범이 처음 예고된 이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마침내 그 화제의 작품 <WE DON'T TRUST YOU>가 세상에 공개되었다.

명실상부 힙합씬 최고의 히트 메이커인 퓨처와 메트로 부민의 조합이 훌륭한 이유는 당연히 이들의 음악이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이中最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들만의 독특한 사운드와 감성적이면서도 음산한 분위기, 그리고 두 뮤지션의 완벽한 호흡이다. 과장 하나 없이, 메트로 부민의 프로듀싱은 매우 혁신적이다. 깊은 베이스, 복잡한 리듬 패턴을 기반으로 하여 어두운 분위기를 탁월하게 연출해내는 그의 비트는 현재 래퍼들에게 무수한 러브콜을 받고 있는 다른 트랩 프로듀서(F1lthy, Tay Keith)들의 비트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으며, 되려 더욱 훌륭하다. 메트로 부민의 작품 속 강렬한 순간들은 가히 영화와 같은 연출이라는 감상을 이끌어내니 말이다.

<WE DON'T TRUST YOU> 역시 두 트랩 화공이 자신만의 색채를 양껏 뽐낸 캔버스와 같은 꿀을 띠고 있다. 먼저 깊고 넘어야 될 부분은 역시나 메트로 부민 프로덕션의 발전이다. 역시나 <NOT ALL HEROES WERE CAPES>, <HEROES & VILLAINS>와 동일하게 어두운 무드의 프로덕션 스타일을 이어가고 있지만, 본작의 프로듀싱은 그의 여타 다른 작품들과 비교해 봐도 단연코 최고이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We Don't Trust You"는 곡의 중심을 잡아주는 훌륭한 사운드와 불길한 분위기를 연출해나가는 벌 소리가 특징적이고, "Like That"에서 Eazy E의 "Eazy Duz It"과 쌍팔년도의 클래식 "Everlasting Bass"를 샘플링한 비트는 그의 최근 작품들, 아니 그의 전체 커리어를 통틀어도 가장 창의적이고 독특하다. 앨범 발매주기가 비교적 짧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을 이루어낸 것이니 그가 얼마나 훌륭한 프로듀서인지 증명해낸 것과도 같지 않은가. 메트로 부민은 이제 독특한 샘플링과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사운드를 통해 자신만의 특색있는 스타일을 개발해낸 것으로 보인다. 앨범에 생동감을 부여함은 물론, 영화적인 분위기와 연출 또한 한층 더 상향된 것 아니 아주 훌륭한 발전이라 말할 수 있겠다.

한편 퓨처는 독특한 보컬과 감성적인 가사를 주 무기로 내세우는 아티스트이다. 그는 특유의 매력적인 중저음 목소리로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돈과 여자, 술과 마약을 비롯한 소재를 다룬은 물론, 성공을 뽐내거나 사랑과 상실을 이야기하며 자신만의 방식대로 인간 본연의 감정을 탐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퓨처와 메트로 부민의 콜라보레이션은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그야말로 엄청난 조화를 이루어낸다. 지금껏 퓨처가 메트로 부민의 음산한 비트 위에서 뽐어온 벌스 중 다수가 그의 커리어에 있어 최고의 벌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둘이 함께한 트랙들은 기존 트랩 음악에서 찾기 어려웠던 창의적인 실험들로 충만하다는 것이 그것을 뒷받침한다.

본작에서의 퓨처의 퍼포먼스 역시 결코 나쁘다고 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단점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아쉬움이 있다. 퓨처의 가장 큰 특징인 목소리는 어떻게 활용되나에 따라 장점도, 단점도 될 수 있는데, 본작에서는 후자의 경우가 더욱 두드러지는 듯하다. 중후하고 허스키한 퓨처의 목소리 특성상, 그의 음악을 몇십 분에 걸쳐 듣기에는 상당히 피곤하기 때문이다. 앨범이 후반부로 치달을수록, 그의 보컬과 래핑은 점차 아쉬움만을 더한다. 대표적으로 비트와 잘 맞물리지 못하는 래핑을 보여주었던 "GTA", 특색을 찾아볼 수 없는 "Seen It All"과 "WTFYM", 앨범의 열기에 비해 너무나도 평이한 래핑을 보여주었던 "Where My Twin @"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Runnin Outta Time", "Ain't No Love" 등의 멜로디컬한 트랙들 역시 이도저도 아닌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아쉬운 모양새로 남게 되었다. 특히 초반부의 "We Don't Trust You", "Ice Attack", "Like That" 등의 트랙과 비교되어 그 실망감이 더욱이나 크게 느껴진다.

반면 앨범에 참여한 게스트들은 매우 특출난 활약을 펼쳤다. 앨범을 대표하는 트랙이자 2024년 최고의 랩 싱글 중 하나인 "Like That"에서 Kendrick Lamar는 자신의 기량을 모두 쏟아부은, 말 그대로 최고의 벌스를 보여주었다. 다채로운 플로우와 탄탄한 랩스킬을 기반으로 Drake와 J. Cole을 디스 하며 자신을 쓴의 소위 '1황'이라 칭한 Kendrick는 곡의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한다. 지난 12월, BET 어워드 시상식에서 시작된 메트로 부민과 Drake가 보여준 아주 사소했던 비프가 마침내 현재 씬에서 가장 뜨거운 디스전으로 승화되는 순간이다. Kendrick에 의해 가려졌지만 Travis Scott과 Rick Ross 또한 매우 빼어난 벌스를 선보여주었다. "Cinderella"에 참여한 Travis Scott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며 앨범 최고의 순간 하나를 탄생시켜내었고, Rick Ross 또한 여전히 탄탄한 랩 스킬로 "Everyday Hustle"을 완성시키고야 만다. 과하지 않게, 적재적소에 투입된 알맞은 피처링진의 활용은 앨범을 고평가 할 만한 요소이다.

종합적으로 <WE DON'T TRUST YOU>는 굉장히 좋다는 평가를 내리기엔 어려운 작품이다. 전작들보다 많은 뱅어, 그보다 더 많은 트랙들이 아쉬움을 남기는 만큼 장단점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메트로 부민의 트랙은 흡집을 곳이 딱히 없을 정도로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퓨처의 경우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욱 부각되어 아쉽다는 인상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본작은 작년부터 제기되어 온 힙합 종말론을 어느 정도 잠재운 앨범이라는 것에서 큰 의의를 지니는 앨범이다. 앨범의 모든 트랙이 빌보드 싱글 차트에 진입함은 물론, Beyoncé라는 대형 팝스타를 누르고 앨범 차트와 싱글 차트(Like That)에서 2주 연속 1위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니 말이다. Jack Harlow의 "Lovin' On Me", 와 ¥\$의 <VULTURES 1> 등으로 점차 사라지는 듯했던 힙합 종말론은 <WE DON'T TRUST YOU>로 인해 완전히 잠잠해지리라 예상할 수 있다. 발매가 예고되

어 있는 둘의 다음 합작 앨범 <WE STILL DON'T TRUST YOU>는 과연 시리즈 첫 작품을 능가할 수 있을 것인가. 걱정보다는 기대가 앞선다.



ADVISORY EXPLICIT LYRICS

METRO BOOMIN & FUTURE

BY 지카

WE STILL DON'T TRUST YOU

“걱정보다는 기대가 앞선다.” 시리즈의 앞선 작품 <WE DON'T TRUST YOU>를 다 듣고 나서, 당시 발매 전이었던 본작에 대해 처음 품었던 생각이었다. <WE DON'T TRUST YOU>는 그만큼 뛰어난 작품이었고 둘의 역량을 다시금 각인시켜주는 순간이었다. <WE STILL DON'T TRUST YOU>또한 전작과 비슷한 분위기를 이어가 메트로 부민(Metro Boomin)은 놀라운 프로듀싱을, 퓨처(Future)는 깔끔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WE STILL DON'T TRUST YOU>는 전작과 상당히 결이 다른 작품이었다. 퀄리티 또한 더욱 부족하다.

우선 전작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자. <WE DON'T TRUST YOU>는 어떠한 앨범이었는가? 정말 간단히 말하자면 많은 트랩 음악을 담고 있는 훌륭한 수작이었다. 그러나 <WE STILL DON'T TRUST YOU>는 전작의 뜨거운 트랩 넘버들이 아닌, 농밀한 R&B 트랙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작에서 훌륭한 트랩 트랙들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아쉽게도, 2개의 디스크로 구성된 <WE STILL DON'T TRUST YOU>는 앨범 전체 분량의 고작 30% 정도를 차지하는 2번째 디스크가 더욱 기억에 남았다. Lil Baby, A\$AP Rocky 등의 게스트를 초빙한 2번째 디스크는 1번째 디스크와는 달리 트랩, 즉 힙합의 요소를 적극 수용하고 있으며, <WE DON'T

>와 비슷한 감흥을 느낄 수 있었던 순간들이 존재했다. 하지만 1번째 디스크는 장점이 아닌 단점이 너무나도 크게 드러난다. 더욱이 앨범 대부분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기에—작품의 저평가에 있어 너무나도 큰 요소로 작용한다.

R&B는 정말이지 양날의 검과도 같은 장르다. 그 어떤 장르보다 춤기기 쉬운 음악이지만 앨범 단위로 듣기에는 실망감을 거듭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시를 들어보자. PARTYNEXTDOOR나 Chris Brown, 또는 Khalid 등 현재 R&B 씬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이 받는 주된 비판 중 하나는 앨범이 너무나도 지루하며 특색이 부족하다는 점에 있다. R&B 요소를 적극 수용한 <WE STILL DON'T TRUST YOU>또한 그렇다.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너무나도 지루하다. 솔과 마약, 여자와 섹스, 가사의 주제 또한 매우 진부하며 곡 각각의 특색이 부족하다. "Came to the Party"부터 "Gracious"까지의 구간을 이야기 해보자. 본 구간은 앨범을 들으면서 가장 아쉽게 다가왔던 구간이다. 유사한 트랙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앨범 속에서도 눈에 띄었던 부분이다. 둘의 독창성과 개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점도 있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어색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크게 남았다.



WE STILL DON'T TRUST YOU

CD 1

- 1 We Still Don't Trust You
- 2 Drink N Dance
- 3 Out Of My Hands
- 4 Jealous
- 5 This Sunday
- 6 Luv Bad Bitches
- 7 Amazing (Interlude)
- 8 All to Myself
- 9 Nights Like This
- 10 Came to the Party
- 11 Right 4 You
- 12 Mile High Memories
- 13 Overload

- 14 Gracious
- 15 Beat It
- 16 Always Be My Fault
- 17 One Big Family
- 18 Red Leather

CD 2

- 1 #1 (Intro)
- 2 Nobody Knows My Struggle
- 3 All My Life
- 4 Crossed Out
- 5 Crazy Clientele
- 6 Show of Hands
- 7 Streets Made Me A King

그럼에도 분명 주목할 순간은 존재하였으니, 앨범과 동명의 트랙인 "We Still Don't Trust You"가 바로 그것이다. 1980년대 신스팝의 향취가 물씬 풍기는 비트는 단연코 작품 내 최고의 비트이며 피처링으로 힘을 보탠 The Weeknd의 보컬 퍼포먼스 또한 매우 빼어나다. 마찬가지로 그가 참여한 "All To Myself", "Always Be My Fault" 또한 굉장히 탄탄한 트랙이다. "Beat It"은 침명크 소울과 트랩을 결합시켜 앨범의 분위기를 적절히 환기시켜주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이름, J. Cole이 힘을 보탠 "Red Leather" 또한 7분에 달하는 러닝타임에도 불구하고 지루하다 느껴지는 순간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완급 조절을 보여주었다.

앞서 짤막하게 언급하였으나, 우리는 앨범의 2번째 디스크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농밀한 R&B 트랙들이 아닌, 오직 트랩 넘버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 곳을. 6곡의 짧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곡들의 퀄리티가 상당하다. "Nobody Knows My Struggle"에서 퓨처는 시리즈 내 최고의 래핑 중 하나를 선보였으며, "All My Life"에서도 Lil Baby와 함께 매우 깔끔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Crazy Clientele"는 메트로 부민 특유의 음산한 프로듀싱과 퓨처의 빼어난 래핑이 이루어낸 훌륭한 조화의 아주 적절한 예시다. 나아가 "Show of Hands"의 피처링으로 참여한 A\$AP Rocky는 다시 한번 특유의 여유로움을 자랑해 내며 엄청난 존재감을 뽐내고야 만다.

근래 이렇게나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는 아티스트가 없다. 힙합씬 최고의 듀오 중 하나인 메트로 부민과 퓨처. 리스너로서 들에게 항상 고맙다는 감정을 느낌과 동시에, 안타깝게도 아쉬운 감정 또한 지울 수 없다. <WE STILL DON'T TRUST YOU>는 앨범의 구성부터 시작하여 수록곡들의 퀄리티까지, 시리즈를 참으로 아쉬운 모양새로 남게 만든 작품이다. 빛났던 순간들의 존재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나도 와닿지 못하였으며—그저 공허한 R&B 트랙의 연속이라는 감상만이 남고야 만 것이다. <WE STILL DON'T TRUST YOU>는 현재 힙합과 R&B 아티스트들을 괴롭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집약이다.

COLD VISIONS

BLADEE

2024.04.24
BY SONGCHICO

우아하면서도 신비로운 감성을 가진 작품들로 디스코그래피를 쌓아 나가던 블레이드(Bladee)도 어느덧 많은 것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30세의 나이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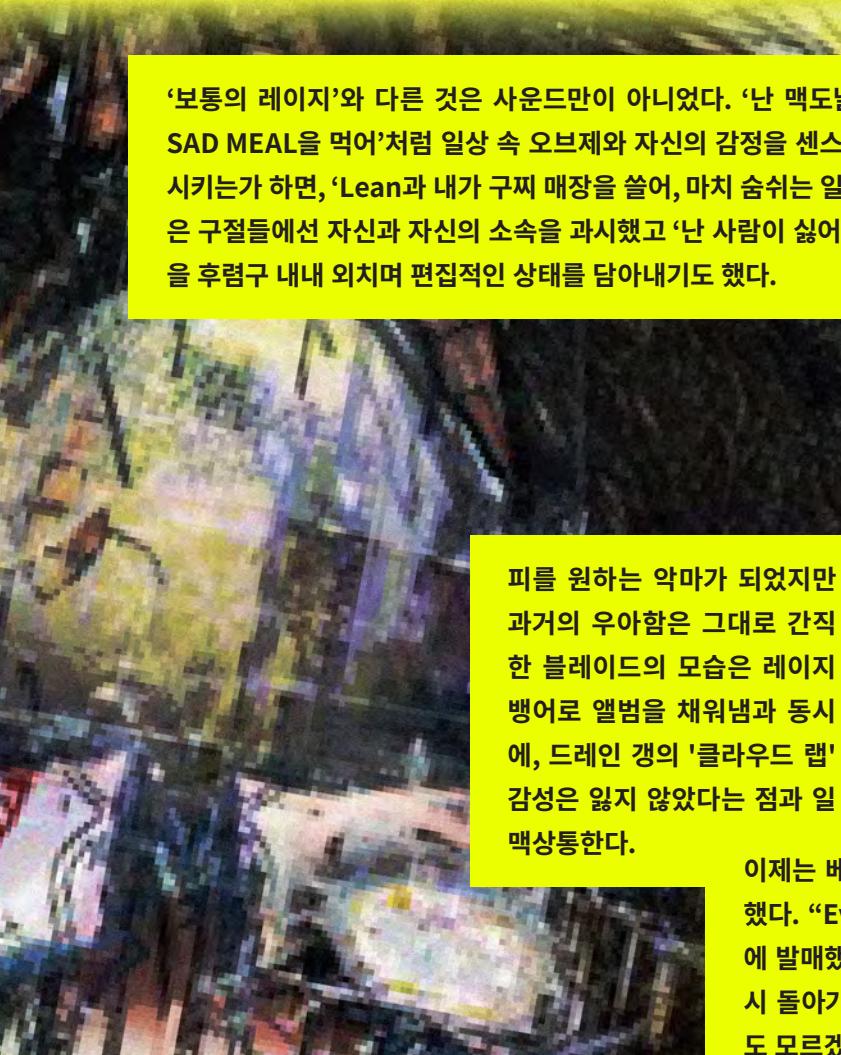
블레이드와 드레인 갱(Drain Gang)은 늘 하나의 감성을 좇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들은 때로는 아름다움을 좇는 아트-팝 아티스트, 혹은 “우울한 Chief Keef”가 되기도 하며 자신의 모습을 바꿔 내는데에 능숙한 집단이다. 그중에서도 서른이 된 블레이드가 새로이 선택한 외형은 악동과 현실을 오가는 여행자이자 'EVIL BLADEE'라 불리던 시절의 모습이었다. 블레이드는 다시 한번 악마가 되기 위해 이미 막스테이프 <Working On Dying>에서 호흡을 맞춘 바 있는 필티(F1lthy)를 초청했고, 레이지 사운드를 자신의 작품에 담아냈다.

블레이드가 선보이는 레이지는 상당히 낯선 경험이다. 하지만 오히려 자신의 최근 작품들에 비해 훨씬 직관적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듯 보였다. 자기혐오와 우울에 빠져 고로워하던 그가 아예 이 감정에 매몰되어 모든 것을 의심하고 파괴하겠다 선언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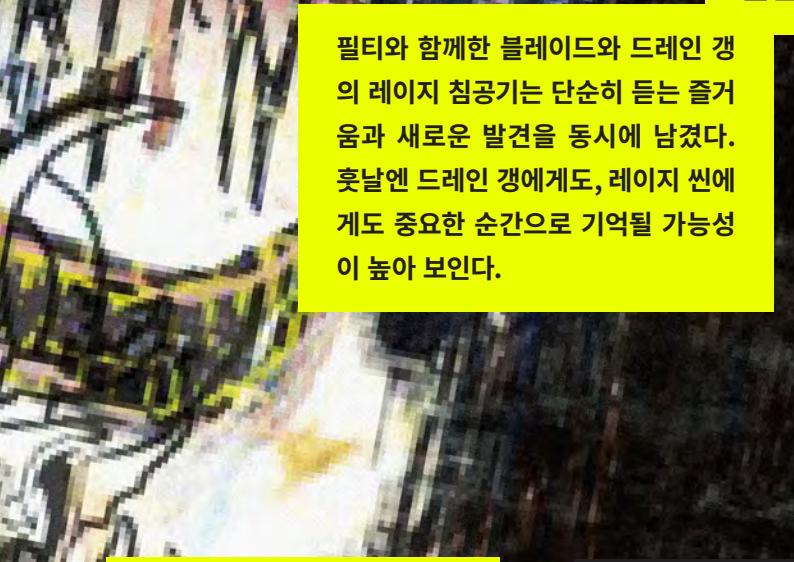
이러한 블레이드의 선택에 필티는 보장된 퀄리티의 레이지 프로덕션을 제공한다. 다만, 평소에 알던 레이지 사운드와는 큰 거리가 느껴진다. 건조한 톤을 유지하는 블레이드 특유의 보컬과 그가 주 장르로 삼던 ‘클라우드 랩’이 그 감상의 가장 큰 이유들이다.

평이한 레이지 사운드를 바탕으로 해 ‘흔한 레이지 래퍼’로 남기보단, 블레이드와 필티의 창의성을 합해 “클라우드 레이지” 정도로 부를 수 있는 사운드를 탄생시킨 것이다.

'보통의 레이지'와 다른 것은 사운드만이 아니었다. '난 맥도날드에서도 SAD MEAL을 먹어'처럼 일상 속 오브제와 자신의 감정을 센스 있게 매치시키는가 하면, 'Lean과 내가 구찌 매장을 쓸어, 마치 숨쉬는 일이지'와 같은 구절들에선 자신과 자신의 소속을 과시했고 '난 사람이 싫어'라는 구절을 후렴구 내내 외치며 편집적인 상태를 담아내기도 했다.



피를 원하는 악마가 되었지만 과거의 우아함은 그대로 간직한 블레이드의 모습은 레이지 뱅어로 앨범을 채워냄과 동시에, 드레인 쟁의 '클라우드 랩' 감성은 잊지 않았다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필티와 함께한 블레이드와 드레인 쟁의 레이지 침공기는 단순히 듣는 즐거움과 새로운 발견을 동시에 남겼다. 훗날엔 드레인 쟁에게도, 레이지 씬에게도 중요한 순간으로 기억될 가능성 이 높아 보인다.



메세지적으로도, 사운드적으로도 새로운 레이지를 탄생시킨 블레이드는 드레인 쟁 멤버들과 영 린(Yung Lean)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였던 인물은 단연코 영 린으로, 매 순간 임팩트 있는 도입부로 귀를 사로 잡았고 본인의 스타일대로 가볍게 내려놓는 듯한 벌스를 써내려 갔음에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쾌감을 선사했다.



이제는 베테랑의 반열에 오른 블레이드는 더욱 소음과 고통에 몰두했다. "Everlasting Flames", "Redlight Moment" 등 초창기에 발매했던 자신의 음악들을 은유적으로 담아낸 것은 그 시기로 다시 돌아가 더욱 큰 쾌감을 선사할 음악으로 돌아오겠다는 선언일지도 모르겠다.

- 
- 1 PARANOIA INTRO
 - 2 WODRAINER
 - 3 YUNG SHERMAN (Ft. Yung Sherman)
 - 4 FLATLINE
 - 5 ONE SECOND (Ft. Yung Lean)
 - 6 SAD MEAL
 - 7 FUN FACT (Ft. Yung Lean)
 - 8 ONLY GOD IS MADE PERFECT
 - 9 DONT WANNA HANG OUT
 - 10 I DONT LIKE PEOPLE
(WHITEARMOR INTERLUDE) (Ft. Whitearmor)



- 11 I DONT LIKE PEOPLE (Ft. Yung Lean)
- 12 END OF THE ROAD BOYZ
- 13 D.O.A by Skrillex & Bladee
- 14 DONT DO DRUGZ
- 15 LOWS PARTLYY
- 16 SO COLD INTERLUDE
- 17 MESSAGE TO MYSELF
- 18 TERRIBLE EXCELLENCE (Ft. Yung Le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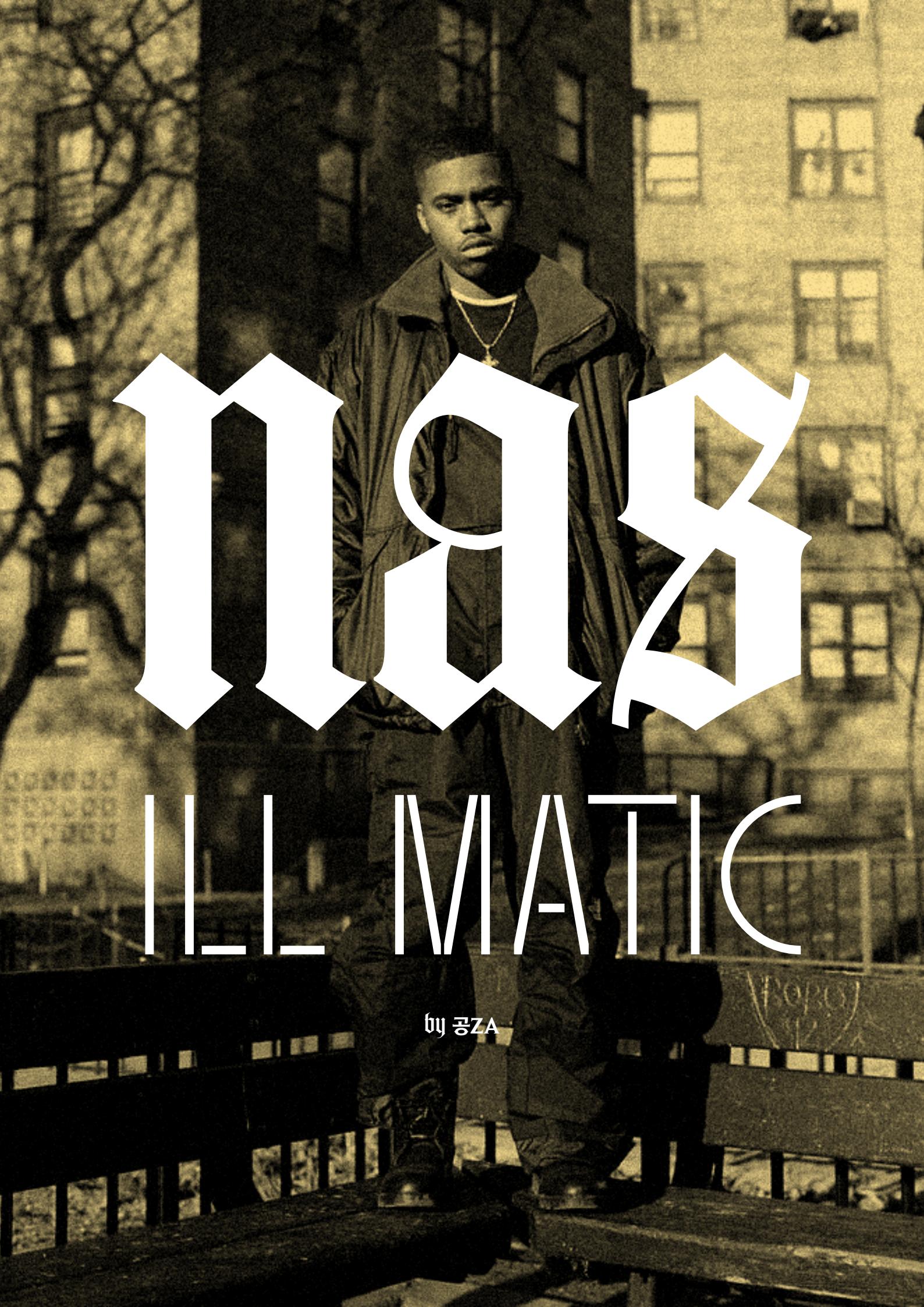
- 
- 19 RED CROSS
 - 20 LUCKY LUKE (Ft. Thaiboy Digital & Yung Lean)
 - 21 RIVER FLOWS IN YOU
 - 22 KING NOTHINGG
 - 23 BAD 4 BUSINESS
 - 24 OTHERSIDE (Ft. Sickboyrari)
 - 25 NORMAL
 - 26 FLEXING & FINESSING
 - 27 PM2
 - 28 FALSE
 - 29 CANT END ON A LOSS (OUTRO)
 - 30 COLD VISIONS (OUTRO 2) (Ft. Ecco2k)

CLASSIC REVIEW

클래식 리뷰

ILL MATIC

The Big Picture



DOPE

ILL MATIC

by 공ZA

갓 지천명을 넘긴,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은 힙합이라는 장르가 세계 음악의 판도를 뒤흔들고 사람들의 것속으로 파고든다. 2024년, 뒤를 돌아보았을 때 힙합의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순간이 언제였나 묻는다면 각자만의 답변이 있을 것이다. 어떤 이는 트랩 씬의 부흥과 함께 수많은 스타를 낳았던 2010년대 후반을, 또 누군가는 솟 품 콘텐츠의 활성화와 더불어 다른 장르들과 자연스레 섞이며 듣는 이들의 도파민을 자극하는 2020년대를 꼽을 수 있겠다. 하지만 가장 많은 사람의 입이 모이는 때는 거리의 시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내뱉으며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물든 잔향을 남기던 1990년 대일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힙합 역사에 길이 남을 수 많은 명반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왔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그중에서도 최고 종의 최고라고 불리며 힙합 애호가들의 바이블로 여겨지는 나스(Nas)의 <Illmatic>. 어떻게 <Illmatic>은 30년간 한 장르의 성스러운 송 가로 자리매김하며 신도들의 예찬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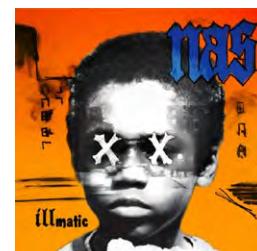
앞서 언급한 힙합이라는 단어의 유래에서 알 수 있듯, 힙합은 디제이들이 댄서들과 호흡을 맞추며 사람들의 흥을 이끌어내는 일종의 파티 음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재즈와 흑크, 소울 음악을 기반으로 두 개의 템테이블을 사용하여 기묘한 스크래칭을 선보이고, 흥겨운 퍼커션으로 이목을 사로잡았다. 이 위에 자메이카 리듬의 보컬을 얹어 랩이 발전하였고, 이후 빈민가의 흑인들이 자신의 삶과 멋, 그들만의 문화와 환경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수단이 된다. 골든 에라의 음유시인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 Run-D.M.C 와 LL COOL J는 신나는 리듬 위로 본인들의 멋을 가감 없이 드러내었고, N.W.A와 Public Enemy는 그들이 흑인으로서 경험하였던 불평등한 사회 현상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갱스터 랩과 폴리티컬 랩이라는 하나의 흐름을 선도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묻자. 금빛 흐름이 힙합을 휘감은 1994년, 스무 살의 치기 어린 래퍼 나스는 대체 어떠한 이야기를 펼쳐냈을까?

그간 각각의 스타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세상에 던졌지만, 정작 본인의 삶을 자신이 직접 몸을 담근 것처럼 생생하게 풀어낸 경우는 없었다. 가난한 코넷 연주자의 아들로 태어난 나스는 뉴욕의 빈민가 중 하나였던 퀸스 브릿지에서 성장했다. 올곧게 자라려는 노력과는 반대로, 그가 상주하는 거리는 마약과 폭력이라는 위험의 그림자 아래 놓여있었다. 정석적인 방식으로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없는 현실, 진흙탕 속으로 끌어내리려는 악마의 옮가미, 친한 친구를 떠나 보내는 불상사를 겪는 10대의 나스. 피를 무시할 수는 없었는지, 그는 자신이 보고 들으며 경험한 것들을 음악으로 표현하기로 결심한다. 다만, 아버지처럼 손으로 누르고 입으로 부는 것이 아닌, 손으로 적어내리고 입으로 뱉는 것으로.

지하철 소리,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영화 속 대사, Nas의 데뷔곡 속 랩이 어우러지며 <Illmatic>은 막을 올린다. 친구들끼리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자신의 동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The Genesis"는 곡 제목처럼 앞으로 나올 내용이 어디로부터 비롯될 것인지를 드러낸다. 준비는 마쳤다. 나스는 본격적으로 퀸스 브릿지의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청자를 뉴욕이라는 무대로 초대한다. "N.Y. State Of Mind"에서는 Rakim의 짤막한 휴지와 더불어 5분가량 랩을 쏟아내며 범죄의 한 장면을 재구성하고, "The World Is Yours"에서는 영화 <스카페이스 (Scarface, 1983)> 중 토니 몬타나의 어린 그림자가 되어 갱스터의 삶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공원 한구석에 앉아 퀸스 브릿지에서 벌어지는 마약과 폭력으로 찌든 삶을 그리는 "Memory Lane", 감옥에 들어간 친구에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편지 형식으로 써내려간 "One Love", 게토라는 미친 정글을 뒤흔들며 자신이 이 거리를 대표하겠다고 선포하는 "Represent"까지. 퀸스 브릿지 한가운데에서 나스의 피부로 스며든 모든 이야기가 랩이라는 수단을 통해 생동감 있게 전달된다.

허나 이뿐이었다면 훌륭한 수필이라고 해도 무방했을 것이다. 나스는 Rakim이 설파했던 라임 이론에 자신의 부드러운 플로우를 통해 앨범 내내 랩의 정석과도 같은 퍼포밍을 연출한다. 올스타 프로듀서 라인업의 지원에 힘입어 능수능란하게 쏟아져 내리는 나스의 운율은 담백하면서도 현란하게 다가온다. 그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건 "Halftime". 나스를 힙합이라는 게임 속으로 데려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Large Professor의 노련한 샘플 사용과 둔탁한 드럼 위에 얹힌 세 개의 벌스는 나스에게는 단순한 휴식이었을지 몰라도 듣는 이에게는 폭격과도 같은 순간이다. "Life's A Bitch"의 AZ의 지원 사격 또한 빼놓을 수 없다. X같은 삶이기에 이를 달래주는 돈이라도 쫓자는 젊은이의 외침은, AZ의 날카로운 플로우에 힘입어 더욱 선명하게 들린다.

허나 이러한 나스의 정석과도 같은 랩이 힙합에 입문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단조로움으로도 다가올 수 있다. 샘플과 루프가 반복되는 건조한 블랙 사운드 위 정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퍼포먼스가 자극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일 먹는 밥이라도 갓 지어 김이 솔솔 나는 뜨거운 쌀밥이 제일 맛있듯, 혹은 항상 풀려온 수학 문제지만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 더욱 술술 풀리는 것처럼, 반복하여 누적된 장르에 대한 이해도가 <Illmatic>을 '대체 불가제'로 만들게 된다. 수많은 물음표가 확신에 찬 느낌표로 바뀔 때, 첫 문단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겠다. 그럼, 30년 전 뉴욕에서 시작된 한 이야기는 어떻게 전설이 될 수 있었을까? <Illmatic>을 듣고 있는 당신의 답은 어떠한가?



ILL
MAT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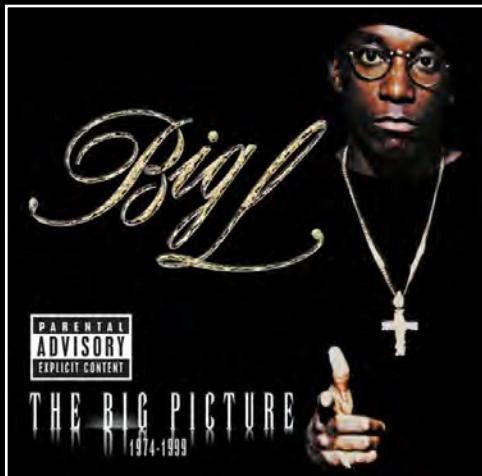
1994.04.19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1 The Genesis2 N.Y. State of Mind3 Life's a Bitch (Ft. AZ)4 The World Is Yours5 Halftime | <ul style="list-style-type: none">6 Memory Lane (Sittin' In Da Park)7 One Love (Ft. Q-Tip)8 One Time 4 Your Mind9 Represent10 It Ain't Hard to Tell |
|--|---|

BIG L



The Big Picture



- 1 The Big Picture (Intro)
- 2 Ebonics
- 3 Size 'Em Up
- 4 Deadly Combination (Ft. 2Pac)
- 5 '98 Freestyle
- 6 Holdin' It Down
(Ft. Andre the Giant, Miss Jones & Stan Spit)
- 7 The Heist
- 8 The Enemy (Ft. Fat Joe)
- 9 Fall Back (Ft. Kool G Rap)
- 10 Flamboyant
- 11 Casualties of a Dice Game
- 12 Platinum Plus (Ft. Big Daddy Kane)
- 13 Who You Slidin' Wit' (Ft. Stan Spit)
- 14 Games (Ft. Guru & Sadat X)
- 15 The Heist Revisited
- 16 The Triboro (Ft. Fat Joe, O.C. & Remy Ma)

by 온암
2000.08.01

안타깝게도 일찍이 세상을 떠난 힙합의 재능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세어본다면, 새삼 빈민가 출신의 래퍼들이 주구장창 주장하는 '환경의 위험성'을 체감할 수 있을 것만 같다. 빅 엘(Big L)은 위의 대표격 인물이다. 순수히 래퍼로서 타고난 재능만을 다루자면 다섯 손가락 내의 인재임이 명백하나, 할렘의 우범성과 어처구니없는 오해 탓에 총격으로 사망한. 짧게 보면 4년, 아무리 길게 봐도 겨우 7년이라는 활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직까지 회자되는 이유는 그 압도적인 랩 실력, 단 하나뿐이다. 극히 예리한 버전의 Nas, Shady의 전신(前身). 역대 최고들과 비견되어도 손색 없는 랩 스킬과 정체성은 엘 사후에도 수많은 세대의 팬들을 결집시킴과 동시에 JAY-Z의 입지를 끊임없이 위태롭게 만들기 충분했다.



프로듀서 중에선 DJ Premier의 활약에 주목해볼 만하다. 인트로에서 빅 엘의 죽음을 추모하며 말 그대로 'Finest'한 비트를 선물한 그의 앨범 내 비중은 예상 외로 결코 높은 편이 아니다. 그럼에도 본작에서 가장 중대한 순간은 Preemo의 비트가 장식한다는 점에서, 그의 음악적 감각은 그 어떤 이와도 비교 불가하다. 한편 게스트들의 활약도 평균 이상의 성과를 보인다. 든든한 지원자 Fat Joe, Gang Starr의 또 다른 반쪽 Guru, 심지어는 "Deadly Combination"의 역사적인 피쳐링 2Pac까지, 비단 빅 엘 본인 외에도 앨범의 랩 엔터테인먼트는 유독 충만하다. 그리고 이 모든 점을 종합했을 때, "Platinum Plus"는 <The Big Picture>의 베스트 트랙이라 찬사받을 만하다. Preemo의 고급스러운 비트 위 엘의 타이트한 랩마저 압도하는 Big Daddy Kane의 아성적인 플로우는 힙합 역사에 길이 기억될 것이다.

전작의 전설적인 라인들이 남겼던 충격과 아이코닉함은 없지만, 더 원숙한 플로우와 화려한 비트들이 그 자리를 대체함으로써 본작은 바로 흥미로워졌다. 모두가 '빅 엘'하면 <Lifestylez Ov Da Poor & Dangerous>만을 기억할 때, <The Big Picture>를 가린 저평가의 먹구름을 걷어내면 또 다른 결의 빅 엘을 목도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그동안 당신이 알고 있었던 빅 엘보다도 훨씬 만족스러운 빅 엘을.



<The Big Picture>가 1집 <Lifestylez Ov Da Poor & Dangerous>에 비해 가지는 이점은 충만한 오락성이다. <Lifestylez Ov Da Poor & Dangerous>는 전설적인 래퍼의 데뷔 앨범으로서 손색 없는 랩 명반이었으나, 빅 엘의 랩을 제한다면 D.I.T.C. 크루 특유의 건조한 음악 스타일 탓에 흥미를 쉽게 잃을 수도 있다는 약점 또한 내포하고 있었다. 때문에 <The Big Picture>는 빅 엘의 생존을 가정했을 때, 그의 차기작으로 떠올릴 만한 모습과 가장 가까운 결과물로 완성된 듯하다. 비운의 천재를 총애하던 힙합의 마에스트로들이 최상급의 비트로 그에게 조의를 표한 것이다. Gang Starr의 DJ Premier부터 Pete Rock, Ron Brownz, Ron G와 Lord Finesse, Showbiz까지 뉴욕 씬을 주름잡는 비트메이커들이 최고의 래퍼에게 걸 맞는 비트들을 선물한 결과, 본작은 음악적으로 전작에 비해 훨씬 흥미로운 결과물로 갈무리되었다. 드럼의 타격감은 강화되었고, 샘플 연주는 훨씬 역동적이다. 인트로의 에너지를 이어받으며 앨범의 시작을 강렬히 선포하는 "Ebonics (Criminal Slang), "Move Me" 샘플로부터 기묘한 광채를 내는 비트와 빅 엘의 완벽한 랩 스킬이 조화를 이루며 그의 새로운 대표곡이 된 "Flamboyant" 정도가 대표적인 예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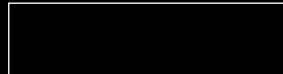
FEATURED

포처

1994^{#3}

s n x o 의
트랩 소울
입문서적

K-POP
케이팝 속



1994 #3

by
Indie Aisle

파로아 먼치(Pharaoh Monch)가 가지고 있는 재능의 크기가 그 명성에 비해 과하게 크다는 사실은 세인의 공통된 의견이지만, 그 활동에 대한 호오는 시대별로 제법 갈린다. 간단히 이분법적으로 보자면 그의 랩을 사랑하는 이들과 하드코어 정신을 향유하는 이들은 솔로 활동 시절을, 앨범의 전반적 톤과 프로덕션을 따지는 이들은 프린스 포(Prince Po)와의 오가나이즈드 컨퓨전(Organized Konfusion) 시절을 사랑할 것이다. 시대의 명암을 훨쓸고 갔던 숱한 힙합 듀오들의 가장 큰 교집합이라면 많은 적은 실력 차로 인한 스포트라이트의 차별이 존재했다는 것인데, 끝내 먼치가 속한 OK도 이러한 법칙을 피해간 그룹으로 남게되지는 못했다. 다만 자신의 매끄러운 랩 실력을 조금 누그러뜨리고—멤버와의 조화와 전반적 프로덕션에 집중한 먼치의 중층성이 있었기에 OK가 역사에 그 이름이라도 혁혁히 기록된 듀오가 된 것이 아닐까, 나는 가끔 생각한다.

오가나이즈드 컨퓨전이 남긴 활기찬 세 장의 앨범 중 가장 애정하는 것은 2번째 프로젝트 <Stress: The Extinction Agenda>인데 그건 단순히 이 앨범이 1994년의 황금기를 수놓은 앨범 중 하나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울 것이다. <Illmatic>과 <Ready To Die>가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1994년에서도, <Stress>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음습한 서정성이 그 연도를 몇 배는 가치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얼핏 폭력적이고 위압적인 기운이 서린 듯한 앨범 안에는 심오한 철학으로 뒤덮인 청년들의 의제가 있고, 시심에 뒤덮여 빼기다가도 문득 현실을 깨닫는 허심탄회함이 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앨범 특유의 활동성 이면에 혼재된 녹작지근함을 불러일으키는 원초적 맹아일 것이다. 나는 종종 골든에라의 랩스타들에 관한 서평을 읽곤하는데, 'The Source'지가 남긴 <Stress> 논평이 그러한 내 단상을 잘 잡아내 준 것으로 기억한다. "Organized Konfusion의 본질은 순수한 서정성에 가까워요. 그들은 정념적인 언어를 왜곡해 창작합니다." 과연 맞는 말이다.

물론 이 앨범의 음악은 형이상학적이고 관념적인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도 충분히 훌륭한 것들로 가득하다. 현실의 아젠다로써 놓인 어떠한 장애물도 뚫어버릴 기세로—쏜살같이 랩을 내뱉는 먼치의 플로우가 그렇고, 그보다는 조금 유머러스한 프린스 포의 랩송이 그렇다. 이들의 랩 속에는 거의 순도 백 퍼센트의 활기가 저며있다. 고행을 통한 예술적 목적 성취나 상업적 이익을 위한 야망같은 것들이(그것도 그들의 힙합 씬 잔존을 위해서는 필수적이었던 야망같은 것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얼핏 단순해보이는 이들의 깊이를 다시 보게 하는 매개체다. 그들의 음악 속엔 혁신이 없지만 자유로운 기백이 있고, 압도적인 재량이 없지만 결점을 허용치 못하는 치밀함이 있다.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도 있다'는 유실유득의 원리처럼, '세기의 명반'으로 남을 창의성과 발화점 같은 요소들은 눈을 씻고 봐도 없지만 당시 힙합 행렬의 최고 점을 향하는 완성도가 앨범의 현주소를 위치시킨다. 그런 것들이 <Stress>를 정의하는 매력이지 싶다. 파로아 먼치는 강렬한 영혼을 쌌기 박듯이 표출할 수 있는 인물이었지만 다소 투박했고, 프린스 포는 다소 활기차고 유순한 스타일이지만 스타성이 부족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들이 서로의 결점을 예리하게 보완하는 때가 와서야 앨범의 완성도가 퍼즐 맞춰지듯 깔끔하게 조직된다. 이런 사실들이 포와 먼치가 주거니 받거니 이어나가는 랩들을 하나의 원숙한 운명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아닐까.



그런만큼 돌보이는 것은 혁신성이나 프로덕션보다는 랩이다. 파로아와 프린스는 자신들의 혼 내부에 침잠된 거의 모든 리듬감과 운율을 동원해 <Stress>의 호기로운 기운을 랩으로 수놓았다. 일순간 Nas를 연상시키는, 재주넘기를 하는 듯한 플로우와 치밀한 댄스마냥 기술적인 라이밍, 힙합의 초연이 가득한 목소리까지—<Stress>는 그야말로 정식적인 랩 테크 뮤직이라 부를 수 있는 물건이다. 말하자면 랩 방법론의 진열대 같다. 포와 먼치의 숨결과 태도에는 여유와 나이스함이 서려있지만 그 래핑에는 은근한 과시성이 물 오른 과일처럼 풋풋하게 베어있는 것이다. 촌철살인으로 뒤덮인 스토리텔링, 참신한 라임의 활용 등 <Stress>의 랩엔 이정표스러운 구석이 많지만 이 앨범의 랩이 맘에 드는 것도 정확히 그 부분에 있다. 스킬적으로도 풍부하지만 그 내면에 펄펄 끓는 혈맥이 있고, 열정에 넘치게 뿐어내는 시대현실의 해상력이 있다. 아마 그런 것들이 포와 먼치가 갖는 짙음의 무기이자 언어학의 비기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에 이들의 랩 테크닉에 스민 재주가 단순한 취향의 영역을 넘어 절대적 완성도를 지닌 하나의 명제로 넘어갈 때— 우리는 그들 안에 담긴 청렬한 예고를 보게 된다. 그 예고들은 예술을 향유하고 시대를 고뇌했던 우리의 청년기와 놀랍도록 닮아있는 것들이다. 아주 닮아있다.

한편 앨범의 프로덕션 또한 랩의 아성에 미치지 못할지언정 훌륭한 구석이 많다. 파로아와 프린스, 단 두 명의 손에서 한 땀 한 땀 제조된 전반적 재즈 텍스처의 랩 비트들은 앨범의 풍취를 더욱 다채롭고 색감적으로 만들어낸다. 찰스 링거스의 솔로와 허비 핸콕의 키보드 스윙이 담긴 'Stress'와 'The Extinction Agenda', 패트리스 러센의 오프너와 캐넌볼의 전위적 화성이 착중된 'Let's Organize', 'Maintain' 모두 마찬가지로 이들은 앨범이 내포한 익스페리멘탈 정신과 재지함을 동시에 발로시켜냈다. 정식적인 힙합 앨범임에도 번식스럽고 실험적이며, 래핑이 담긴 그루브임에도 각 트랙들이 결연히 스윙하는 앨범의 톤앤매너는 모두 이러한 프로덕션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큰 기여를 해낸 것은 누가 뭐래도 포였다. 자신의 솔로 앨범에서 단 한 번도 씬에 유효타를 날리지 못한 포는— 먼치의 인력권 안에서 꾸준히 자신이 가진 재능의 고점을 피력한다. 먼치가 지극히 자신스러운 하이톤으로 최고의 벌스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는 동안, '단단한' 평크 드럼으로 치밀하게 비트를 찍는 그의 모습에는 힙합씬에 영원한 존재로 남을만한 재능이 있고 기백이 있었다. Rakim의 아성에도 씬에 이름을 각인 시킨 Eric B와, André 3000의 암도적 사유력에도 입지를 지킨 Big Boi처럼, OK의 프린스 포 역시 스포트라이트의 차별은 받았을지언정 자신의 역량은 특특히 선보인 셈이다.

그리고 그런 점들이 'Let's Organize'와 같은 곡들에 이르러 제각기 장기를 발휘한다. <Stress: The Extinction Agenda>에는 손에 꼽을 만큼 훌륭한 곡이 많지만 그래도 단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면 그 누구라도 이 곡을 꼽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Q-Tip의 싱그러운 목소리와 O.C의 초연 가득한 래핑, 러센의 우아하고 고풍스런 재즈 합이 맞아떨어질 때 앨범은 상상할 수 있는 '힙합적' 표현력의 내핵까지 질주한다. 그 광경을 조금이라도 보고 있노라면, 세 명의 솜씨좋은 래퍼들이 여유롭게 랩하는 모습이 얼마나 따스하고 정열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특히나 트랙 프로듀서로 참여한 프린스 포의, '저물어가는 석양 같은' 프로덕션이 인상적이다. 보조 프로듀서 Buckwild나 Rockwilder가 직조한 차갑고 날카로운 분위기를 뒤엎고, 앨범의 톤을 따뜻하게 바꿔놓는 포의 샘플 차핑에서는 짧지만 견고한 경이마저 느껴진다. 어쩌면 우리는 이 곡을 들을 때마다 뜨겁게 저물어가는 주황빛 석양을 등지고서, 브루클린 다리 아래 모인 네 예술가들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포의 손길이 달은 프로덕션을 청취하고, 파로아와 Q-Tip, O.C가 내뱉는 랩을 들을 때면 늘 그런 생각이 듈다.

S N X O 의 트랩 소울 입문서 적

by s n x o



T - P A I N

트랩소울이라는 장르의 시초를 떠올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Bryson Tiller의 데뷔작 <T R A P S O U L>을 먼저 떠올릴 것이다. 트랩 비트 위 둔탁한 808, 무거운 베이스와 감미로운 소울 보컬. 사실 이러한 특징의 음악은 틸러가 데뷔하기 십 년도 전부터 존재하였다. 2005년 발매된 T-Pain의 곡 “I'm Sprung”와 “Chopped N Screwed”만 보아도 우리가 앞서 말한 트랩소울의 모든 기준에 충분히 부합하는 곡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오늘날 우리가 트랩소울이라 부르는 장르에 포함시키기엔 무리가 있다. 분명 같은 요소를 담고 있지만 사운드에서 지금의 트랩소울과는 거리가 너무 먼 것이다. 그렇다면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무엇이 트랩소울을 하나의 장르로 구분 짓는 것이며, 트랩소울은 어떻게 탄생한 장르인 것 일까?

D J S C R E W & U G K

웨스트 코스트에 지평크가 있다면, 90년대 휴스턴엔 Chopped & Screwed가 존재했다. 이를 그대로 샘플을 차핑하고(chop) 레코드의 피치와 속도를 늘이며 망가트리는(screw) 이 기법은 휴스턴의 전설적인 디제이, DJ Screw로부터 시작되었다. 총 356개의 작품으로 마무리 된 그의 Screw Tape 시리즈가 아직 100번대에 있을 당시, 한 테이프가 휴스턴의 전설적인 듀오 UGK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UGK는 182번째 Screw Tape을 함께 녹음하게 됨은 물론, 그의 사운드에 막대한 영향을 받아 세번째 정규 앨범을 발표하게 된다. 이 앨범이 바로 훗날 더티 사우스의 영원한 명반으로 평가받는 1996년작 <Ridin' Dirty>다. 빠른 템포의 스네어와 808, R&B 보컬과 블루스 샘플. DJ Screw와 UGK가 함께 정립한 휴스턴의 사운드는 2000년대에 들어가며 힙합 씬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D R A K E

2008년 11월 18일, 토론토의 신예 래퍼 Drake에게 휴스턴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된다. 연락한 사람의 이름은 Lil Wayne. 그렇게 Drake는 Lil Wayne이 설립한 레이블 Young Money에 들어가게 되고 1년 뒤,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그의 믹스테이프 <So Far Gone>이 탄생한다. Lil Wayne에게 처음 연락을 받았던 날짜를 상정하는 “November 18th” 속 DJ Screw를 향한 샤라웃과 그의 대표곡 “June 27th Freestyle”의 샘플링, 그리고 DJ Screw와 함께 휴스턴 힙합을 책임졌던 Bun B의 피쳐링을 받은 “Uptown”까지. Drake는 여러 차례 휴스턴에 대한 리스펙을 표현한다. 바로 직전 해에 나왔던 Kanye West의 <808s & Heartbreak>가 앨범의 전체적인 방향과 사운드에 큰 영향을 주었다면, R&B와 소울 샘플, 휴스턴의 힙합 씬 자체가 그의 정체성을 성립하는 데에 있어 큰 역할을 한 것이다.

휴스턴의 Chopped & Slowed와 R&B 샘플링, Kanye의 오토툤과 감성이 합쳐져 탄생한 Drake의 <So Far Gone.> 그의 음악은 휴스턴은 물론, 그의 고향 토론토에까지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의 믹스테이프를 시작으로 2년 후 발매 된 The Weeknd의 <House of Balloons>까지. 어두운 피아노와 오토툤이 섞인 높은 수위의 알앤비 보컬, 흐린 분위기의 새벽 감성으로 이루어진 토론토만의 사운드가 서서히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다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만의 레이블 OVO Sound를 만든 Drake는, 바로 다음 해인 2013년, 현대 트랩소울 사운드의 창시자가 되는 OVO의 첫번째 아티스트를 영입한다.

P A R T Y N E X T D O O R

Drake가 열어둔 문을 통해 The Weeknd가 자신만의 길을 발견했듯, PARTYNEXTDOOR 역시 데뷔 앨범 <PARTYNEXTDOOR>을 통해 Drake의 <So Far Gone>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자신만의 색을 섞어나가기 시작한다. 바쁘게 쪼개지는 트랩 비트와 한껏 어두워진 분위기, 그리고 집요하게 사랑과 이별, 섹스만을 노래하는 하나의 주제의식. 트랩소울이란 사운드의 본격적인 시작은 그렇게 OVO에서 비롯되었다.



B R Y S O N T I L L E R

그렇다면 도대체 왜 Bryson Tiller가 트랩소울의 원조로 여겨지는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PARTYNEXTDOOR가 만들어낸 사운드에 트랩소울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Bryson Tiller이기 때문이다. Drake와 PARTYNEXTDOOR를 비롯한 당시의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그랬듯, Kanye West의 <808s & Heartbreak>에서 영향을 받은 미니멀리즘과 주제의식, 그리고 PARTYNEXTDOOR의 것보다는 밝고 서정적인 분위기. 이 모든 요소들이 한 앨범에서 합쳐져, 비로소 트랩소울이 하나의 사운드에서 장르로 발전하게 된다.

Breakbeat

케이팝 속 Jersey Club

2023년 케이팝은 저지 클럽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DJ Tameil”로 대표되는 Brick Bandits Crew가 창시한 Baltimore Club 기반의 장르 저지 클럽은 2022년 12월 공개된 NewJeans의 “Ditto”를 필두로 케이팝에 모습을 드러냈다. 특유의 아련한 겨울 감성과 엄청난 반향으로 메가히트를 이뤄낸 본작 이후 저지 클럽이라는 명칭이 대중들에게 각인되자, 곧바로 다양한 그룹에서 유사한 사운드를 차용하기 시작했다. 2023년에는 LESSERAFIM의 “이브, 프시케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와 SEVENTEEN의 “손오공” 등, 대형 그룹들은 저지 클럽을 사용하여 대성공을 거뒀고, ODD EYE CIRCLE의 “Air Force One”, tripleS의 “Moto Princess”, STAYC의 “LIT”, YOUNG POSSE의 “POSSE UP!” 등 비교적 소규모의 그룹들 사이에서도 저지 클럽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2024년에 이르러서는 (여자)아이들의 “Vision”과 TWICE의 “RUSH”, NCT DREAM의 “icantfeelanything”, “Carat Cake”과 같이 예상치 못한 중견 그룹들에게서도 양질의 저지 클럽 곡들이 발매되었으며, 힙합 그룹이라는 컨셉을 가져가는 영파씨 또한 “Skyline”에서 전작에 이어 다시 한번 저지 클럽 리듬을 사용했다.

이처럼 저지클럽은 많은 그룹들로부터 남용에 가깝다 싶을 정도로 차용되고 있다. 하우스와 힙합을 섞어 만들어 낸 특유의 '뚱뚱 뚱뚱'하는 리듬이 케이팝의 댄서블한 특성과 최상의 시너지를 자아내기에 이러한 경향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음악적 리듬을 넘어 Lil Uzi Vert가 “Just Wanna Rock”에서 선보인, 필라델피아에서 탄생한 ‘Blinking’ 댄스 무브까지 뉴진스와 (여자)아이들, ILLIT 등의 그룹의 코레오그래피에서 발견되는 것은 음악 외적 요소 또한 막대한 중요성을 가진 케이팝이 저지 클럽과 좋은 호흡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를 보여준다.

Jersey Club

뉴저지에서 볼티모어 클럽 음악을 하던 DJ Tameil이 1999년 창시한 장르. ‘뚱뚱 뚱뚱’하는 특유의 킥 리듬과 130-140 정도의 BPM이 특징이다. 하우스와 힙합이 유판된 볼티모어 클럽 음악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며, 808 베이스와 브레이크비트 샘플을 자주 사용한다. 2000년대 중순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지만 이렇다 할 히트곡은 내지 못하던 중, 2020년 Cookie Kawaii의 “Vibe (If I Back It Up)”이 틱톡에서 2백만회 사용을 넘기며 저지 클럽의 전세계적 유행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Drake의 “Currents”와 “Sticky”, 릴 우지 버트의 “Just Wanna Rock” 등 메이저 힙합 아티스트들이 큰 유행을 불러일으켰고, 2023년에는 케이팝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K-POP 케이팝 속

by BlackMatter

Breakbeat

케이팝 속

Drum and Bass

DnB 또한 케이팝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브레이크비트 중 하나이다. 2020년대에 들어 처음 사용된 저지 클럽과는 달리 DnB는 2010년대 중후반 발매된 곡들에서부터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메가히트를 이뤄낸 TWICE의 “Cheer Up”, I.O.I의 “너무너무너무”, fromis_9의 “두근두근”과 “유리구두”, 이달의 소녀의 “Hi High” 그리고 스테이씨의 “SO BAD”를 포함하여 BTS, Stray Kids, ENHYPEN 등 무수히 많은 곡들에서 사용된 정통 DnB 비트는 주로 특유의 강력한 폭발력을 이용해 클라이맥스를 불러일으키는 부가적 요소로 사용되었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된 3세대 또는 4세대 초반의 곡들과는 달리 그 후의 케이팝 곡들은 서브 장르 중 하나인 Liquid 또는 Atmospheric DnB의 특성을 주체적으로 이용하여 무드를 생성해내는 데에 집중한다. 트리플에스가 선보인 “초월”, “Speed Love”와 “Invincible”, 르세라핌의 “Burn the Bridge”, 뉴진스의 “Zero”, ARTMS의 “Birth”, 트와이스의 “One Spark”, ZEROBASEONE의 “In Bloom”, 영파씨의 “Skyline”, IVE의 “Blue Heart” 그리고 SHINee의 “The Feeling”까지, 모두 DnB 특유의 속도감을 적절히 활용하여 복잡한 리듬을 통해 댄서블한 트랙을 구성하고, 앞서 언급된 서브 장르 특유의 공간감과 몽환적인 분위기를 이용하여 독특하고 흡입력 있는 멜로디라인을 생성해 낸다. 이처럼 케이팝에서 끊임없이 사용되어 왔고 이제는 부가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넘어 중요 구성요소로서의 자리를 차지했기에 DnB 또한 케이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별미가 되었다. 현재 장르를 대표하는 핑크 팬서리스가 EXID의 곡을 샘플링하고 르세라핌의 멤버 허윤진을 만나 사진을 찍는 등 케이팝과의 관계성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 언젠가 DnB 아티스트들과 케이팝 그룹의 협업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Drum and Bass

1990년대 영국의 Rave 씬에서 브레이크비트 하드코어와 자메이카 씬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정글에서 파생되어 시작된 전자 음악의 장르 중 하나. 브레이크비트의 특성을 그대로 가져와 165-185 정도의 매우 빠른 BPM이 특징 중 하나이며, Shy FX, DJ Dextrous, Krust 등의 흑인 DJ들이 선구자로 평가받는다. 90년대의 강한 열풍 이후 2000년대에는 향세를 겪었지만 2010년대에 재부흥이 시작되었으며, 2020년대에 이르러서는 Z세대의 각광을 통해 다시 생명이 불어넣어지고 있다. 팝 씬에서는 핑크팬서리스와 Nia Archives, 언더그라운드 씬에서는 Sewer-slv와 TURQUOISEDEATH 등의 아티스트가 두각을 드러내고 있으며 후세대 케이팝 속 DnB는 이들이 전개하는 리퀴드 또는 Atmospheric DnB의 멜로디컬하고 몽환적인 요소에 강한 영향을 받았다.

Plugg

케이팝 속

Rage

2023년 후반기에 이르러서는 플러그 기반의 비트 또한 케이팝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aespa의 “Drama”는 레이지의 장르적 시초와 특성으로 평가되는 퓨처 베이스로부터 만들어지는, 귀를 찌르는 듯한 신디사이저를 사용하여 특유의 ‘쇠맛’을 만들어내 호평을 받았고 레이지와 케이팝 간의 교류의 시작을 알렸다. MMA2023 무대에서는 “Trick or Trick”부터 “Drama”까지 Playboi Carti와 프로듀싱 그룹 Ojivolta의 Oji가 Rolling Loud에서 선보인, 일렉 기타 편곡을 강하게 레퍼런스한 듯한 편곡을 통해 장르적 특징을 더욱 강조시키기도 했고 레이지의 향기와 저지 클럽 리듬이 사용된 인트로를 선보이기도 했다.

저지 클럽 부문에서 이야기했듯, 음악 외적인 요소에서 보여주는 호흡 또한 돋보인다. 신디사이저 드랍에 맞추어 강렬한 흑과 함께 선보이는 “Drama”的 하이라이트 안무와 댄스 브레이크는 관객에게 클라이막스를 환상적으로 전달해주며 레이지와 케이팝, 둘의 컬라보레이션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었다. 2024년 발매된 영파씨의 Scars 또한 케이팝과 레이지의 성공적인 컬라보레이션의 예시다. 마찬가지로 신디사이저의 색이 굉장히 강한 이 곡은 신디사이저가 멜로디를 진행하는 동안 Trippie Redd와 플레이보이 카티가 “Miss The Rage”에서 선보인 특유의 안무를 코레오그래피에 포함해 케이팝과 레이지 간의 교류에 대한 가능성을 한층 더 보여주기도 했다. 올 4월 TOMORROW X TOGETHER의 “Deja Vu”를 통해 HYBE 또한 케이팝 속 레이지 대열에 참여하며 신디사이저의 부분적 차용을 넘어 트랩적 요소들의 차용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기도 하였다. 레이지 장르의 대표 주자인 OPIUM의 멤버들도 케이팝에 대한 관심을 숨기지 않고 있으니 어쩌면 예상치 못한 시일에 예상치 못한 컬라보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Rage

트랩의 하위 장르 중 하나인 레이지의 유행은 2021년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모쉬핏(레이지)을 그리워하는 의미를 담은 트리피 레드와 플레이보이 카티의 “Miss The Rage”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일렉트로닉에서 차용해온 퓨처 베이스 기반의 날카로운 신디사이저가 만들어내는 특유의 미래지향적인 분위기가 특징인 레이지는 2020년대 이후 엄청난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F1lthy, Art Dealer, BNYX® 등의 프로듀서들과 플레이보이 카티, 트리피 레드, Yeat, SoFaygo 그리고 OPIUM과 SlayWorld 소속 아티스트들 등 Z세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아티스트들의 리드를 받아 탄탄한 팬층을 쌓아 올린 레이지는 이제는 자가복제라는 특성을 넘어 음악적 발전을 이루어낼 포지션에 있기도 하다.

Plugg

케이팝 속

PluggnB

플러그와 R&B의 퓨전 장르 플럭앤비 또한 2024년 초 ILLIT을 통해 케이팝에 모습을 드러냈다. 아일릿의 데뷔곡 “Magnetic”은 플럭앤비의 뽕뽀거리고 멜로디컬한 신디사이저와 함께 칩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MZ스러운 감성과 귀여움을 효과적으로 어필하는데 성공하였다. 뉴진스로 시작해 현재 케이팝의 가장 큰 음악적 트렌드 중 하나로 자리잡은 이지리스닝과 플럭앤비의 멜로디컬한 장르적 특성이 적절히 결합된 이 곡은, 데뷔 곡임에도 음악적 진보를 가져감과 동시에 그룹 아이덴티티의 확립에도 도움을 주었다. 특유의 드럼 리듬에 중점이 맞춰져 이식이 쉬운 저지 클럽과 달리 트랩적 요소를 제하고 신디사이저의 부분적 차용만을 택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사례가 케이팝의 새로운 방향성에 대한 제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시일 내에 정통 플럭앤비를 사용한 케이팝 트랙이 나올지 주목해 보는 것 또한 흥미로울 지점일 것이다. 아일릿이 “Magnetic”으로 데뷔 후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빌보드 100 차트에 오른 등의 행보를 고려하면, 올해 혹은 내년 플럭앤비 하우스의 유행을 기대해볼 수도 있음직하다.

PluggnB

2010년대 후반부터 모습을 드러낸 플럭앤비는 기존 플러그에 멜로디컬한 컨템포러리 알앤비의 신디사이저를 이식한 장르이다. Lil Shine, Autumn!, Summrz 그리고 Kankan 등의 아티스트들이 선도하는 이 장르는 기존 플러그나 레이지와 비슷한 요소들을 가지면서도 레이지에 비해 덜 폭력적이고 귀여운 사운드를 자랑한다. 레이지와 마찬가지로 Z세대와 솟폼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플러그의 서브 장르 중 대표 격으로 자리잡았다. 허슬러로 유명한 RXK Nephew와 하드코어 랩 스타일을 결합한 Glokk40Spaz 또한 씬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귀여운 비트 덕분에 Dina Ayada와 34Corine 등의 여성 아티스트들과도 최상의 호흡을 자랑한다.

케이팝 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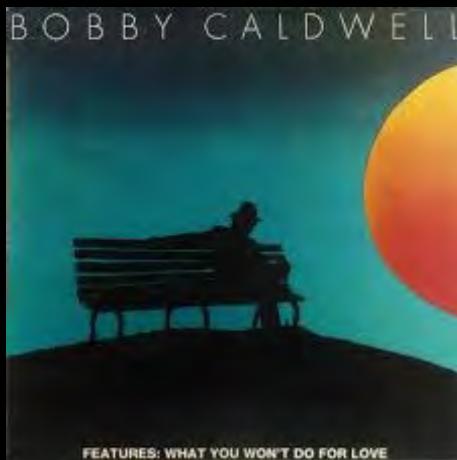
음악적 트렌드를 절대 놓치지 않는 케이팝인 만큼, 블랙뮤직과 케이팝의 콜라보레이션은 더욱 다양하다. 스테이씨와 영파씨, Red Velvet 등이 선보인 드릴과 BLACKPINK와 영파씨가 선보이는 블랙밥 등, 특정 장르에 국한하지 않고 진행되는 이 음악적 발전은 앞으로도 멈출 기세가 없어 보인다. V와 민희진이 선보인 재즈 장르의 <Layover>는 재즈에 대한 민희진의 폭넓은 관심이 낳을 수 있는 케이팝 속 재즈 씬의 청사진을 보여 주었고, 2024년 르세라핌의 “Smart”와 BoA의 “정말, 없니? (Emptiness)”,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The Killla (I Belong To You)” 등의 곡들은 Tyla와 Burna Boy 등을 위시한 아프로비찌 유행의 물결에 이미 케이팝이 탑승하였음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블랙뮤직의 일부 아티스트들과 팬덤은 타 문화와의 접목에 대해 예민한 스팸스를 취하고 있기도 하지만, 양측에게 다양한 가능성과 발전의 여지를 열어주는 음악적 교류는 두 문화를 모두 즐기는 리스너를 언제나 설레게 만든다.

EDITOR'S PICK

에디터스 퍽

Bobby Caldwell / Sirens / The Grey Album / Cold

Toronto / Starburster / TL;DR



Bobby Caldwell

Bobby Caldwell

TRACK 1. Special to Me / 2. My Flame / 3. Love Won't Wait / 4. Can't Say Goodbye / 5. Come to Me / 6. "What You Won't Do for Love" / 7. Kalimba Song / 8. Take Me Back to Then / 9. Down for the Third Time

DATE 1978

EDITOR 온암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 동일한 맥락으로, 음악에는 피부색 또한 없다. 약 1년 전 작고한 바비 콜드웰(Bobby Caldwell)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위 명제에 대한 산 증인이었다. 푸르른 하늘과 대비되는 일을 태양의 빛, 바비는 그 낭만적인 빛에 흰 피부를 숨겼다. 모든 외부적 거부감을 일체 차단한 채 오직 목소리만으로 승부한 바비 콜드웰의 셀프 타이틀은 나른한 재즈와 요트 락 음악으로 청자에게 그저 기분 좋은 안정감만을 제공한다. 피아노, 기타, 베이스, 드럼, 그리고 사람의 목소리가 이루는 정석적인 블루 아이드 소울 하모니. 전위적인 음악적 시도와 파격적인 사운드 없이도 사람은 충만한 행복에 젖을 수 있다. 하다 못해 힙합 최고의 라이벌리 또한 그들 대표곡의 원곡을 본작에 빛지고 있으니, 궁금해서라도 본 음반을 꺼내보는 것이 응당하지 않겠는가? 바비 콜드웰이 개방한 1978년의 안식기로, 지금 떠나보자.



Sirens

nicolas jaar

TRACK 1. Killing Time / 2. Wildflowers / 3. The Governor / 4. Leaves / 5. No / 6. Three Sides of Nazareth / 7. History Lesson

DATE 2016.09.30

EDITOR 감상주의

미니멀 테크노계에서 나름대로 핫한 루키였던 니콜라스 자르(Nicolas Jaar). 그의 위상을 단숨에 다른 차원으로 옮려놓은 것은 1집 <Space Is Only Noise>로 말미암은 음을하고 초현실적인 우주 공간의 구현이다. 이토록 비정형 및 탈장르적인 추상을 목도한 전자음악팬들에게 그것은 명백한 창세였다. 그러나 정작 창조주는 이로부터 꽤 오랫동안 도피하고 고뇌하였다. 몇 가지 추가 실험들을 거친 후 드디어 공백을 깐 그가 마련한 것은 바로 대안(Alternative)이었다. 그는 보다 현세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차기작 <Sirens>는 켄드릭 라마의 <To Pimp a Butterfly>나 켄 로치 영화들의 사회파 리얼리즘으로부터 영감을 얻었다. 작품에서 작가 기준의 특징인 몽환경("Killing Time")은 유년 시절 아버지와의 순진무구한 대화에 의한 사적 노스텔지어("Leaves", "No")를 거쳐, 모국인 칠레의 과거 독재 정권("Nazareth")과 국제 사회의 역사적 과오("History Lesson")를 향한 냉소와 일갈을 통해 공적 사회 담론으로 확장을 이루었다. 그리하여 자르는 개인과 정치, 초현실과 현실 간의 상호 공존을 다름 아닌 댄스 음악을 통해 증명하기에 이르렀다.



DANGER MOUSE

The Grey Album

Danger Mouse

TRACK 1. Public Service Announcement / 2. What More Can I Say / 3. Encore / 4. December 4th / 5. 99 Problems / 6. Dirt Off Your Shoulders / 7. Moment of Clarity / 8. Change Clothes / 9. Allure / 10. Justify My Thug / 11. Interlude / 12. My 1st Song

DATE 2004.02

EDITOR denim

공개된 작품의 일부를 차용하는 ‘샘플링’ 기법에서 탄생한 그 덕에 힙합은 아직도 창작이란 명분의 범용성에 대해 끊임없는 해명을 요구받는다. 하지만 이런 논쟁은 무시한 채 응지로부터 시장의 판도를 바꾼 앨범이 있으니, 프로듀서 데인저 마우스(Danger Mouse)의 2004년작 <The Grey Album>이다. 무려 비틀즈의 <The White Album>과 제이지의 <The Black Album>을 융합한 이 발칙한 리믹스 앨범은 그 영향력을 논하기 전, 완성도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Dirt Off Your Shoulder”처럼 샘플을 잘게 조각내 재조합한 방식도 있는 반면, “What More Can I Say Pt.1”과 같이 비틀즈의 목소리를 통으로 이용한 과감한 시도도 보인다. 록을 기반으로 재탄생한 비트 위 얹어지는 제이지의 랩은 “December 4th” 같이 원곡을 뛰어넘는 선선함을 선사하기도 한다. 물론 이런 대범한 시도에도 한정된 소스는 단조로운 후반부를 낳았고, 최종 곡 “My 1st Song”는 제이지의 속사포 스타일에 비트가 이끌려 가는 느낌마저 듦다. 그럼에도 <The Grey Album>이 상징적인 이유는 한 개인이 거대 회사를 상대로 예술과 규율을 구분 짓기를 요구한 증표이기 때문이다. 앨범 유포 금지령을 내린 EMI를 상대로 대중은 격분했고, “Grey Tuesday”라는 시위까지 벌이기에 이른다. 50분이 채 되지 않는 개인작이 도태된 표준을 거부하는 시대성을 대변하는 대표작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 앨범은 회자돼야 마땅하다.



Cold Toronto

Che Ecru

TRACK 1. Sell Itself / 2. Unless / 3. FAMOUS / 4. I'll Be There / 5. Without U / 6. 4 This Moment / 7. Lovin' / 8. Wet Wet Wet / 9. Fell Asleep / 10. Went Gone / 11. Lost In U / 12. So Right With U / Detour / 13. Bring That / 14. Things That I Do

DATE 2022.12.9

EDITOR snxo

트랩소울의 아버지가 PARTYNEXTDOOR, 어머니가 Bryson Tiller이라면, 현대 트랩소울의 아들들 중 단연 제일 눈 여겨 볼 행보를 보이고 있는 뮤지션은 바로 토론토의 래퍼 Che Ecru이다. Drake와 PARTYNEXTDOOR의 OVO Sound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장르인 만큼, Che Ecru는 그의 2022년작 <Cold Toronto>를 통해 다시 한번 트랩소울이라는 장르의 근본을 상기시킨다. 비록 장르 특성상 모든 곡이 비슷하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겠지만, 오히려 이를 이용이라도 한 듯 앨범의 모든 곡이 마치 하나의 곡처럼 이어지게 만들어 앨범의 컨셉인 어둡고 차가운 새벽의 분위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재현해낸다. 앨범 속 대부분의 곡들에서 나타나듯 한 두 마디의 가사만을 반복해 사용하며 가사보다는 비트 프로덕션에 더 큰 힘을 실은 앨범임을 스스로 증명하나, 트랩소울의 제일 중요한 요소인 분위기와 감성만큼은 그 어느 현대 트랩소울 앨범보다도 잘 그려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두 마디의 벌스, 그리고 35분이라는 짧은 러닝타임으로 이루어진 앨범이기에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Bryson Tiller와 같은 트랩소울의 대부들로부터 열렬한 서포트를 받고 있는 아티스트인 만큼, 뛰어난 포텐셜을 갖고 있음은 분명하다.



Starburster

Fontaines D.C.

TRACK 1. Starburster

DATE 2024.04.17

EDITOR 자카

네온사인이 깜빡이는 밤거리를 상상해보라. 그리고 이 속에서 한 남자가 불안에 떨며 절박한 걸음을 내딛는다. "Starburster"가 바로 그것이다. 불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기타 리프, 전보다 더욱 강렬하고 짙은 호소력을 자랑하는 리더 Grian Chatten의 보컬, 본 트랙은 정말이지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Grian Chatten이 런던의 한 지하철역에서 공황 발작을 겪었던 사건이 있었다. 그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하게 된 "Starburster"는 자신들은 짓누르는 세상의 무게, 그리고 겪고 있는 불안을 음악으로 완전히 변모시킨 듯하다. 'It may feel bad', 'I wanna bite the phone', 'I wanna bleed the tone'. 심오하고도, 동시에 끔찍한 가사 또한 그들의 불안한 감정을 극대화하여 표현해 내었다. 음악적인 발전 또한 매우 눈부시다. 전작 <Stinky Fia>에서 처음 등장한 트립합 스타일을 더욱 개선해냈으며, 일렉트로니카와 힙합의 요소까지 결합해내고야 말았다. 오는 8월 발매될 그룹의 정규 4집 <Romance> 또한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분명 그룹의 중요한 한 걸음이 될 작품일 것이라 확신한다. 세상의 종말 속에서도, 로맨스를 좋고 좋으며.

TL;DR

Bladee, Ecco2k & Thaiboy Digital

TRACK 1. TL;DR

DATE 2024.04.19

EDITOR BlackMatter

스웨덴의 다섯 친구들이 모여 음악과 패션 전반에 반향을 물결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한지도 어느새 10년이 지났다. 특유의 음악성과 미학, 신비주의적 컨셉으로 거대하고 탄탄한 팬덤을 유지해온 스웨덴의 음악 및 패션 콜렉티브 Drain Gang은 5년 만에 멤버 전원이 모인 싱글 <TL;DR>을 통해 지나온 10년과 팬덤을 향해 현정의 노래를 올린다. 기존 작업물들에 이어 우울감의 테마를 이어가는 가사 속 끊임없이 레퍼런스되는 "Under Your Spell", "D-925", "GT-R", "Backstr~~ix~~t Boys" 등 과거 드레인갱의 작업물들. 이는 긴 시간 자신들을 서포트해 준 Drainer들이 알아볼 수 있는 감사의 암호문을 보내는 듯하다. 동시에 Whitearmor가 프로듀싱한 비트는 드레인갱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해준다. 기존의 우울하고 몽환적인 Cloud Rap 또는 Art Pop이나 Hyperpop과도 맞닿아 있는 음악적 스펙트럼을 Dark Plugg로까지 확장함으로써 드레인갱은 Gravity Boys 시절의 스타일로 잠시 회귀하여 이후 발매된 Bladee의 Rage 앨범 <COLD VISIONS>의 방향성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얼터너티브한 드레인갱의 방향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Too Long; Didn't Read, 그들은 상관하지 않는다. 자신들과 Drainer들을 위한 음악을 하니까.



NEWEDITOR 뉴에디터

감상주의

개인 블로그에서 묵묵히 탐구생활을 즐기다가 좋은 기회를 얻어 함께 하게 됐습니다. 호소인이 아닌 진정한 음악 변태로 거듭나는 것이 꿈인 저의 덕후력을 유심히 지켜봐주세요!!

"열글~!"X2

좋아하는 아티스트

AKG, 양문학, 이센스, 켄드리克, 얼 스웻셔츠, 제이지, 비요크, PJ하비 등등

좋아하는 앨범

Asian Kung Fu Generation <Kimi Tsunagi Fivem>

이센스 <The Anecdote>

검정치마 <Team Baby>

CREDITS 크레딧

인트로듀싱

감상주의/ denim / SongChico / snxo / 자카 / 공ZA / ryuzimoto

피처

Indie Aisle / snxo / BlackMatter

풀 리뷰

자카 / 예리 / SongChico

snxo / 온암 / denim / BlackMatter / 자카 / 감상주의

클래식 리뷰

공ZA / 온암

디자인

나나



khlhomofficial@gmail.com
@hausofmatters